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개요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
-강원도(江原道) 고성군편(高城群篇)-

김 성 범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심 영 섭

(國立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목 차

I. 머리말	IV. 조사내용
II. 조사경위 및 경과	V. 맺는 말
III. 고성군의 지리자연	

I. 머리말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는 자체 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을 끼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97년 4월말부터 5월말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군사보호구역¹⁾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휴전선 이남의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에 대한 실태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학술적 자료 및 유적의 보존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또한 향후 통일에 대비, 민족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사사업이다.

고성군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이미 다른 학술기관을 통해 조사되어 보고(강릉대박물관, 『고성군(高城郡)의 역사(歷史)와 문화유적(文化遺蹟)』 1995)된 바 있으나, 다른 사람(기관)에 의하여 조사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적이 찾아진다는, 다시말하여 지표조사의 한계(완전무결한 지표조사는 있을 수 없다는)를 인정치 않을 수 없다는 원칙과 본사업의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을 갖고, 기 조사된 유적·자료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완과 새로운 유적을 찾아보자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시작하였다. 1차조사에서 확인·조사

1) 여기에서의 '軍事保護區域'은, 「軍事施設保護法」 第2條(定義) 및 第4條(保護區域등의 설정등)에 의하면, '陣地·障礙物 기타 軍事目的에 직접 供用되는 軍事施設을 보호하고 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保護區域內에 따로 設定하는 民間人統制線(軍事分界線의 南方 1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設定)으로 더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역 설정의 범위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엄밀히 사용하자면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시초부터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라는 사업명으로 확정·시작되었으며 본래의 조사 취지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과 첫번째 조사보고(金聖範,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京畿道 漣川都篇-) 『文化財』 第25號, 文化財管理局, 1992, pp.219~260)의 p.219에서 사용하였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개념규정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글에서의 정의로 대체하고자 한다.

된 유적은 총 95건으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신석기유적에서 근대의 유적까지 모든 시기의 유적들이 망라되었다.(삽도1) 2차조사가 1998년 전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고성군 전체유적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간행될 정식보고서에 소개할 예정이다.

글의 순서는 조사경과와 고성군의 지리·자연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조사된 유적 중 읍면별·종류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여 건의 유적에 대하여 현상·수습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1차 지표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며, 문화재 보존업무의 기초자료로 우선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II. 조사경위 및 경과

이번 지표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에서 주관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 19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는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조사가 완료된 시·군은 경기도 연천군·파주군, 강원도의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며, 금번 고성군의 1차 조사까지 합하면 모두 6개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조사확인된 유적의 총수는 540건에 이른다.

금년도 '97 고성군에 대한 지표조사는 '97.4.24~5.31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선사시대의 유물산포지부터 역사시대의 사지, 건물, 기념비까지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과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부대의 도움을 얻어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인 거주지역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중 의문이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위촉된 조사위원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면서 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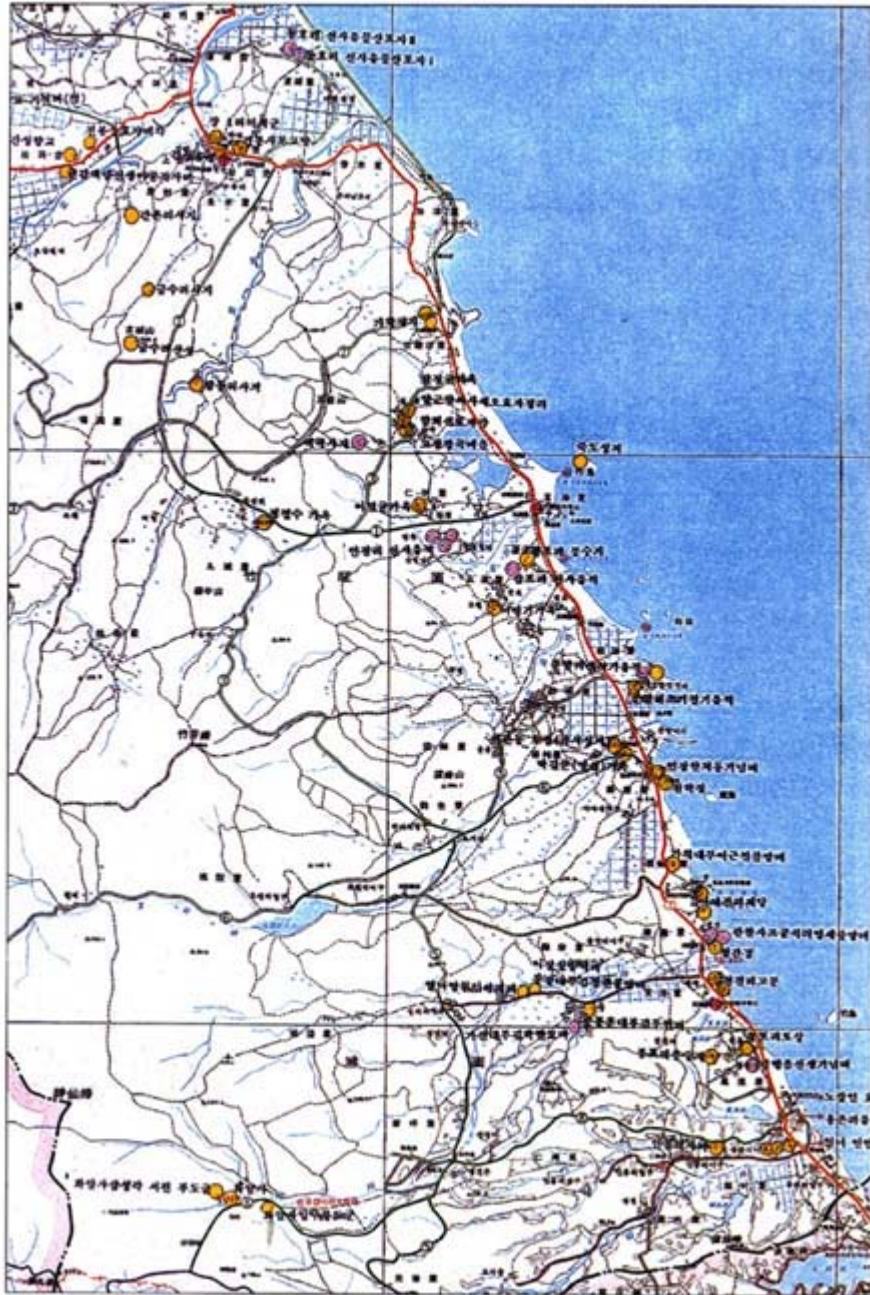
조사위원 백흥기(강릉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몽룡(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삽도 1-①) 고성군 문화유적 분포도(북쪽지역)

(삽도1-①) 고성군 문화유적 분포도(북쪽지역)



(삽도 1-②) 고성군 문화유적 분포도(남쪽지역)

(삽도 1-②) 고성군 문화유적 분포도(남쪽지역)

이 재(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조사단장 홍성빈(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장, 현 경주문화재연구소장)

조 사 원 김성범(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현 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심영섭(" ")
 고(故) 송필윤(" ")
 유명도(" ")

조사보조원 이우형(연천문화원 연구원)

이번 조사기간 자문하여 주신 백홍기 교수(강릉대), 이재 교수(육군사관학교), 최몽룡 교수(서울대), 차용걸 교수(충북대), 조유전 관장(국립민속박물관장)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당지역 군부대부대장, 특히 관할 사단의 사단장, 고성군수, 고성군 문화공보실장, 이선국 문화공보계장, 황광을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이 조사기간 내내 고락하였고 필자들과 10여년간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면서 발굴·지표조사 등 조사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청춘을 바쳐 헌신해 왔던 송필윤 선생이 지난 가을('97. 9. 8)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애석한 마음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진정으로 빌면서, 이 글을 고인의 영전에 바치기로 한다.

III. 고성군의 지리(地理)·자연(自然)

고성군은 강원도 동북단에 있는 군(郡)으로 동쪽은 동해안에 면하고, 서(西)는 인제군, 남(南) 속초시, 북(北)으로는 고성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인 휴전선과 면하고 있다. 지리좌표상으로는 동경128°35'33"로부터 128°31'까지이며, 북위 38°36'51"인 현내면 송도진리에서 북위 38°11'30"인 토성면 용촌리까지이다. 면적은621.17(km²)이며, 인구는 4만 미만, 행정구역은 2읍(邑) 4면(面)(이 중 수동면은 미수복지구로 일부만이 편입되어 있음) 87개 법정리(里)가 있다. 군청소재지는 간성읍(杆城邑) 하리(下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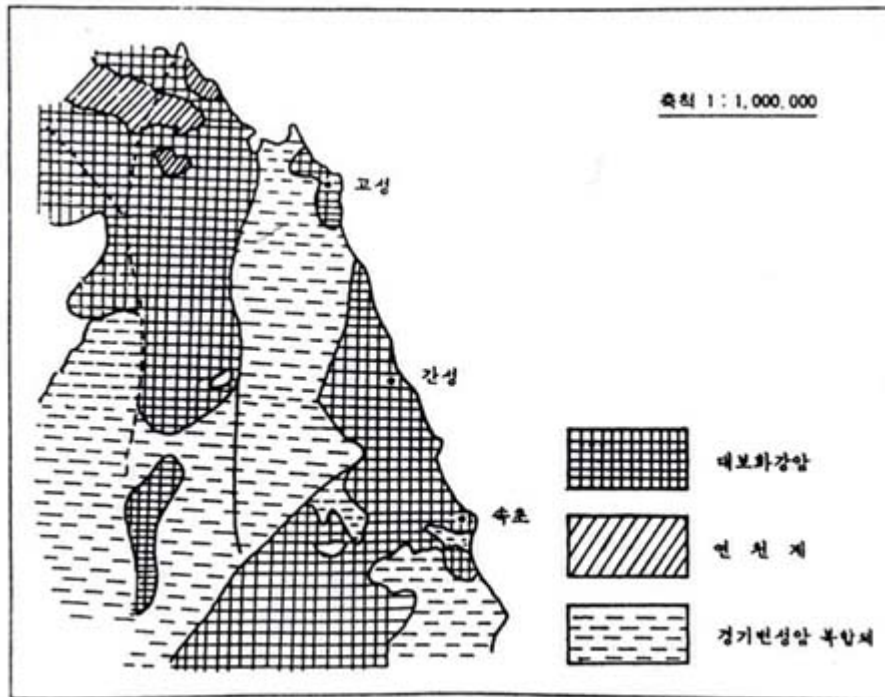
지형과 지세에 대해 살펴보면, 군(郡)의 서부 금강산(1,638m)에서 향로봉(香爐峰)(1,293m), 설악산(1,708m)으로 이어지는 해발 1,000m 이상의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달리고 있고, 간성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길목에 진부령(陳富嶺)(626m)이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역할을 해오고 있다. 북부에는 남강(南江)과 신계천(新溪川)이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수동면 남쪽에서 합류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 남부에는 진부령 부근에서 발원한 남천과 북천이 각각 간성읍의 남·북쪽을 거쳐 동해로 흐르는데 이 하천들의 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해식애(海蝕崖)와 사빈(砂濱), 사구(砂丘)가 교대로 나타나며, 사취(砂嘴)나 사주(砂洲) 등 모래톱의 발달로 만(灣)의 입구가 좁혀짐으로써 형성된 '석호(瀉湖)'인 감호(鑑湖), 화진포호(花津浦湖), 송지호(松池湖)가 있어 지리적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²⁾

군(郡)의 지질환경(地質環境)은 경기육괴 북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반을 이루는 선캄브리아기 경기 편마암복합체를 구성하는 편암 및 편마암류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류,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류로 구성되며 이들을 관입한 백악기의 소규모의 암맥들이 곳곳에 노출되며 평야지대 및 해안지대에는 제4기 충적층들이 발달하여 있다.(삼도 2)

2) 고성군의 지리와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高城郡, 『高城郡誌』, 1986.
 江原道, 『民統線北方地域資源調査報告書』
 權赫在, 『韓國地理(各地方의 自然과 生活)』, 法文社,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을 참고하였음.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은 110여개 과(科)에 1,500여종이 분포하는데 주로 고산식물이 많다, 동물상은 곰, 멧돼지, 노루, 청솔모 등 포유류 40여종, 새매·뺨꾸기·까치·참새 등 조류 40여종과 다양한 종류의 양서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기후는 서편의 태백산맥으로 인해 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서 겨울이 온난하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을과 겨울에 강수량(특히 눈으로 인한)이 많고, 봄과 여름철에는 영서지방보다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연강수량은 약1,130mm이다. 연평균 기온은 11.9℃, 1월 평균기온은 -0.2℃, 8월평균 기온은 23.7℃이다.



(삽도 2) 고성군 지질도 『고성군지』에서 취합

(삽도2) 고성군 지질도 『고성군지』에서 취합

IV. 조사내용

1.간성읍

간성읍에서는 <표 1> · <표 2> 에서와 같이 모두 16개소의 유적이 확인·조사되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선사 2, 삼국 1, 통일신라 1, 고려 1, 조선 5, 기타(미상) 6건이며, 종류별로는 9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적 중 역사·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유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호리(東湖里)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址)(사진 1)

소재지: 간성읍 동호리 윗갈벌

유물산포지는 간성읍내에서 동호리 마을로 들어가는 두 개의 도로 중 북편의 도로를 따라 약 1.9km 들어가면 민가들의 집락(윗갈벌)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마을 입구의 민가와 텃밭에 신석기시대 유물들이 산재하여 있다. 유적의 주변 환경은 남쪽으로는 넓은 들과 남천이, 북으로는 북풍과 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해발 약 60m 높이의 야산과 북천이, 동쪽으로는 약500m거리에 동해가 있는 사람살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 동호리 유적은 후술할 죽왕면 문암리 신석기 유적과 마찬가지로 야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사호(死湖)가 되어버린 구석호(旧瀉湖) 지역에 있다는 공통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 신석기인들의 생활양식의 일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호리 신석기 유적은 아쉽게도 민가들의 재건축등으로 그 원형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 시급한 보존대책이 아쉬운 곳이다.

이 유적에서 수습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편들과 어망추 1점, 돌도끼 1점인데, 토기편의 문양은 어골문, 격자문 등이 있다. 특히 어골문은 횡으로 시문한 것인데 깊이가 1mm정도로 깊어 그 문양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면 1-①】 토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암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지 않은 점토에 불규칙한 크기의 석영립, 잔석립 등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있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내면은 둥글고 외면으로 한단의 턱을 만들었다. 기벽후(器壁厚) 10mm.

【도면 1-②】 토기 동체부편으로 외면 청갈색, 내면 회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매우 거친편으로 굵은 석영립과 소량의 운모,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外面)에는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 거칠게 시문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8.5mm.

【도면 1-③】 동체부편으로 외면 황갈색, 내면 흑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외면에는 침선에 의해 상당히 큰 간격의 사격자문이 얇게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편으로 일부 굵은 석영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소량의 장석과 운모가 포함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6mm.

【도면 1-④】 동체부편으로 외면 암갈색, 내면 명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으며 속심은 흑갈색이다. 기내면(器內面)은 Slip처리가 되어 있고, 외면(外面)은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립의 장석과 소량의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7mm.

【도면 2-①】 동체부편으로 외면 명갈색, 내면 적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외면(外面)에는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에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립이 혼입되어 있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매우 단단하다. 기벽후(器壁厚) 8.5mm.

【도면 2-②】 동체부편으로 외면은 암갈색, 내면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단면에 테쌍기 흔적이 보이며, 외면에는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석영립과 장석 및 소량의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6mm.

【도면 2-③】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고 이고, 속심은 흑회색을 띤다. 외면에는 장방형 시문구에 의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압날문이 여러줄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영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8.5mm.

【도면 2-④】 갈들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자갈들을 이용하여 만든 한면이 잘 갈린 갈들이다. 옆면들은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약간씩 갈았으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길이 6.6cm, 폭 4.7cm, 최대후(厚) 2.4cm.

나. 동호리(東湖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址)(사진 2)

소재지: 간성읍 동호리 윗갈벌

산포지는 간성읍내에서 동북편 약 1.9km 거리에 있는 해발 60m 야산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있는 곳은 남으로는 남천(南川)이, 북으로는 진부령에서 발원하여 간성읍의 북편을 따라 흐르는 북천(北川)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약 500m거리를 두고 동해바다가 있어 동호리 남쪽의 넓은 들을 합한다면 선사인들의 생활근거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현재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 자연적인 현상변경이 심하지 않기 때문인지 무문토기의 구연부편, 저부편, 동체편 등 토기편 수점만이 수습되었다. 하지만 이 유적과 연하여 동남쪽에 늦은 시기의 신석기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앞서 말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동기시대인들의 주거지가 분포하리라 추정할 수 있다.

다. 금수리산성(金水里山城)(사진 3), (사진 4)

소재지: 간성읍 금수리·탑동리

이 산성유적은 간성읍 서남쪽 약 2km거리에 있는 고성산(297m)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르는 길은 읍내에서 서남쪽으로 나있는 313번 군도(郡道)를 따라 탑동마을로 진입하다가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서 우측의 고성산으로 오르면 된다. 현재는 군사도로로 해발 약 250m정도까지는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성(城)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일제시대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고성군(高城郡) 군내면(郡內面) 금수리(金水里)의 국유지(國有地)에 있는데 금수리부락(金水里部落)의 서남(西南) 약삼십정(約三十町)(3,270m)의 고성산정(古城山頂)에 위치함. 고성산성지(固城山城址)는 주위약삼백십육간(周圍約三百十六間)(574m)으로 일부(일부(一部))에 석축(石築)이 있으나 대부분(大部分) 토축(土築)으로 불완전(不完全)함’이라 하였다. 《문화유적총람》에는 ‘일면 고성산성이며 자연석 난층쌓기로 되었는데 “고성군 수성지”에 고려초 축성으로 주위 2565척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석축이 많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城)은 정상부(9부능선)에 축성되어 있는 퇴피식 산성이다. 성 안쪽에는 동서길이 약 150m, 남북 길이 약 200m 정도의 부정형의 넓은 평탄지가 있다. 넓이 약 10,000평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잔존 성벽은 20~50cm의 현무반암 할석을 이용하여 난층(亂層)쌓기로 길이 60~70cm의 장대석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작은 돌로 뒤채움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쌓은 것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산성의 거의 전부가 근작전지역 시설로 인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사용된 석재들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있다. 성의 남남서 지역에 높이 160cm, 길이가 10m 정도의 벽체가 남아 있고, 성벽 앞에는 기단부가 계단식으로 3단이 쌓여 있음이 확인된다. 성 동북쪽에도 성벽일부가 잔존하여 있는데, 길아 약 11m, 높이 4m이다. 또한 단면상으로 본 기단부의 넓이는 6.2m 정도이다. 아마도 동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안쪽으로는 우물터도 있으며, 산성 내부와 성벽 바깥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기와조각과 토기편, 자기편이 흩어져 있다. 산불방지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망루에 오르면 간성읍과 동해안 등 사방이 관조되는데 성과 주변정황으로 볼 때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산성에 대해 새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쪽에는 문지를 활용되었던 암괴인 돌저구, 면석등이 남아 있다. 특히 돌저구, 면석 등은 이 지역이 현무반암지대이고 축성시 사용된 돌이 대부분 현무반암인데 비해 이 문지에 사용된 암석재는 모두 화강암이다. 이는 출성을 위해 다른 곳에서 옮겨왔음을 증명하여 준다. 방향으로 보았을 때 '남문지'라 생각된다. 또한 성의 남남서 지역에는 자연 암벽을 치석하여 호성을 만들고, 화강암을 치석하여 기단부를 조성한 유구들이 잘 남아 있다. 특징은 기단부를 10-20cm씩 들여 쌓으면서 축성하였고 썰기돌들을 활용하였다.(서문지역에서 화강암 썰기돌과 장대석이 기단이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 시대의 전형적인 축성방법으로 판단되며, 이 유구 윗쪽에 있는 현재의 잔존 성벽은 고려시대에 보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면 3-①】 청자 음각연판문대접 구연부편으로 맑은 청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는 회백색의 고운 점질토이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 연화문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도상복원지름은 15.5cm.

【도면 3-②】 청자 양각당초문접시 저부편으로 녹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시유상태가 양호하며, 굽안쪽은 시유되지 않았다. 안면에는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다. 잔존높이 4.1cm, 저경 5.8cm.

라. 금수리사지(金水里寺址)(사진5)

소재지: 간성읍 금수리

사지는 간성읍 서남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성산 정북편 계곡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현재 사지 주변은 아카시아,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고 지형이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지로 사용된 것 같다. 주변에서 와편과 토기편이 산견되고 있으나 건물과 관련된 초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탑의 동편 20여m 지점에 초석 1기가 보이는데 크기는 106×88×20cm이다.

《조선보물고적자료》에 의하면 사지의 이름은 수태사(水 태汰寺)로 3층 석탑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남아있지 않고, 다만 1기의 석탑이 남아 있어서 이 곳이 사찰이 조영되었던 곳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석탑은 4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5층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래 2층기단에 5층 탑신을 올린 평면 방형의 석탑으로 생각된다. 현재 기단부는 상층부(상대갑석, 상대중석)와 하층기단 갑석만이 남아 있다. 상대갑석부는 옥석괴임 받침을 조출하여 갑석과 일체로 처리하였다. 많은 부분(주로 낙수면)이 박리되었다. 상대중석부는 탱주와 우주를 양각으로 조출하였다. 하층 기단갑석에는 4면에 모두 안상이 남아 있다.

탑신부는 현재 옥신 1개와 4개의 옥개석이 남아 있다. 현 1층 옥신은 옥석 받침부의 4면에서 모두 5cm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건립시의 옥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황으로 보아 제2층의 옥신으로 추정된다. 현재 M1 소층의 총알이 그대로 박혀 있고 또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1층 옥개석은 현재 남아 있는 옥신과 같은 짝임을 확인하였다. 옥개석은 현재 4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복원된 비율이 맞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현 탑신 1층부가 1층이 아니고 2층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없어진 옥신및 개석 부분은 1층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옥개석의 층급 받침은 4개로 표시되어 있다. 현재 옥개석의 대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깨어져 나갔다. 상륜부는 모두 멸실되었다. 탑의 현존 높이는 2.6m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거진읍

거진읍에서 조사된 유적은 모두 23개소이다. 시대별로는 선사 9, 삼국 2, 고려 1, 조선 5, 기타(미상) 6건이며, 종류별로는 12개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거진읍내 소재한 유적 중 역사·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원당리(源塘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사진 6)

소재지: 거진읍 원당리

유물산포지는 화진포 호수 남남서쪽에 있는 원당리 월안 마을의 서편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는 야산(해발 20~40m)의 동편끝자락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철로와 7번국도의 건설로 인해 능선이 절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동편으로는 화진포 호수에 면하고, 서편으로는 해발 150m 정도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으며 남·북쪽은 트여 있는 곳이어서 선사인들이 생활근거지로 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야산에는 20~30년된 소나무와 오리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민묘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유물은 정상부의 한 민묘 옆에서 집중 채집되었다. 주변지역이 나무숲과 같았으므로 덮여 있는 곳이어서 전체적인 정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나 다행히도 자연적으로 유수에 의해 삭토된 채 드러나 있는 곳에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가능하였다. 이곳에서 반달돌칼, 어망추, 빗살무늬토기편 등을 수 점 수습하였다. 특히 유적 입지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판단되는 유적이거나 빗살무늬가 채집됨으로써 이른 시기의 연대를 갖는 청동기시대유적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몇점의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3-③】 외면 밝은 회갈색, 내면 짙은 회갈색, 속심 짙은 회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면의 정면상태는 풍화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외면은 상부에 황주어골문이, 하부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나뭇잎맥 모양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활석이 다량 섞여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윤적법에 의한 성형을 하였다. 기벽후(器壁厚) 10—m.

【도면 3-④】 화강암 계통의 작은 자갈들의 양측면을 양방향으로 떼어내어 얇은 흙을 만들었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길이 5.3cm, 폭 4.4cm, 두께 2.7cm.

【도면 3-⑤】 강자갈의 장축 측면을 양방향으로 떼어내어 얇은 흙을 만든 어망추이다. 한쪽부분이 결실되었다. 압질은 화강 편마암이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길이 7.3cm, 폭 6.1cm, 두께 3.3cm.

【도면 3-⑥】 점판암 재질의 석재를 이용하여 만든 반월형 석도로 반파되었다. 단인 석도로 중앙의 투공은 양쪽에서 뚫었으며 전면에 마연을 실시하였다.

나. 화포리(花浦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사진 7)

소재지: 거진읍 화포리 차골

유물산포지는 화진포 호수 남남동편의 차골이라고 부르는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400m지점인 호반 저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남쪽으로 내만되어 있는 넓은 골짜기로 현재 계단식 밭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해안 대부분의 청동기유적은 야산 능선이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이 유적은 호숫가의 저지대에서 유물들이 확인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 유적은 이미 1960년대에 지석묘와 함께 많은 양의 유물이 채집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최숙경, 「화진포 주변토기, 석기, 지석묘」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7호.1996) 이번 조사에서도 석촉, 반달돌칼, 방추차, 돌도끼편 등의 석기 다수와 공열토기편들이 일부 수습되었다. 이 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작은 조각들인데 유물산포지가 밭으로 경작됨으로써 트랙터등에 의하여 토기 및 석기 유물들도 잘게 부셔진 것으로 보인다.

【도면 4-①】 안산암제 합인석부로 인부(刃部) 일부만 남아 있다. 지표에 노출 후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듯하다. 단면이 장방형으로 인부(刃部)쪽에서 폭이 좁아져 등근 합인부(合刃部)를 완성하였다. 양측 가장자리에 타격에 의해 1차 성형한 흔적이 보인다. 길이 6.9cm, 폭 6.1cm, 두께 1.9cm.

【도면 4-②】 반월형 석도편으로 등부분은 타격에 의해 1차 성형후 간단히 마연하였으며 인부(刃部)는 단인(單刃)이나 반대쪽이 약간 갈려있다. 인부(刃部)일부에 결손 부위가 있다. 구멍은 2개가 남아 있는데 양쪽에서 뚫었다. 장주형(長舟形)으로 판단된다. 최대폭 4.3cm, 최대두께 6.5cm.

【도면 4-③】 Siltstone제 반월형 석도편으로 가운데 일부만이 남아있다. 등부분은 거칠게 마연되었으며 인부(刃部)는 매우 가파른 단인(單刃)으로 일부 결손이 있다. 마연상태가 불량하며 전체적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구멍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양쪽에서 뚫었다. 장주형(長舟形)으로 추정된다. 최대폭 5cm, 최대두께 7.5cm.

【도면 4-④】 Siltstone제 방추차로 1/4정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크기에 비해 얇은 편이다. 가장자리는 한쪽이 말각되었으나 한쪽은 거의 직각에 가깝다. 중앙부가 약간 두터우며 원형투공이 있다. 추정직경 6.2cm, 두께 0.65cm, 중앙부 투공 직경 0.6cm.

【도면 4-⑤】 대부분 니암제 석재를 사용하여 만든 석촉들로 유경식, 무경식이 함께 있으며, 단면도 마름모꼴과 이등변육각형이다. 길이 2.7~5.2cm, 폭 1.3~1.5cm, 두께 0.3~0.7cm.

다. 화포리(花浦里)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소재지: 거진읍 화포리 장평 화진포콘도 앞

화포리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화진포호수 동편의 군(軍) 휴양시설인 화진포 콘도 앞에 위치한다. 유적 서편으로는 호수가, 동편으로는 동해가 마주하고 있으며, 50년 이상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호수와 면한 지역으로 약 200평에 이른다. 이곳은 이미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민무늬 토기조각, 타날문 토기조각 등의 수습사례와 그 밖에 초기철기 시대의 집자리로 보이는 진흙층 및 검게 탄 재층과 함께 불맞은 붉은 들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금번 조사에서 무문양 토기 저부편, 동체부편 등 토기편 20여 점과 철제 도끼 1점을 수습하였다.

【도면 4-⑥】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외면 회갈색, 내면 회색, 속심 회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면은 풍화가 심하여 정면작업의 상태를 알 수 없다. 굽과 동체부의 구별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장석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발이나 완으로 추정된다. 잔존높이 3.4cm.

【도면 4-⑦】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외면 암갈색, 내면 적갈색, 속심 암갈색의 색조를 띠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바닥은 평저이나 안쪽이 약간 들려 있으며, 동체부와 연결부위 저부에 손가락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5cm.

라. 정양산봉수지(正陽山烽燧址)(사진 8)

소재지: 거진읍 반암리

거진읍 반암리 소재 반암리 마을의 서남방 800m 지점에 있는 해발 약 170m 높이의 정양산 정상에 있다. 해안에 면해 있으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가 트여있어 봉수시설 입지로 알맞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이 봉수지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의 지리지 외에 조선후기의 각종 지리지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3km 떨어진 술산(戌山)(현내면 마차진리)과 남쪽으로 11km거리인 죽도(竹島)(죽왕면 오호리) 사이에 위치하여 신호 전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의하면 ‘봉수지(烽燧址) 오대면(梧垈面) 반암리(盤岩里) 반암리부락(盤岩里部落)의 서쪽 약삼백간(約三百間)거리의 산정(山頂)에 위치. 약삼간(約三間) 사방석총(四方石塚) 불완전(不完全)’이라 기록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원형을 유지해오다 약 40년 전에 봉수지가 있던 정상부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면서 방형의 봉수지는 완전 파괴되었다 한다. (고성군청 문화재전문위원 황광률씨 증언).

이번에 현지를 조사한 결과, 그 유지에는 소량의 석재와 토기편만 수습될 뿐 폐쇄된 군대공진지가 자리하고 있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거의 멸실된 상태였다. 이 산의 정상부에 서는 《여지도서(輿地圖書)》 간성군(杆城郡) 봉수조(烽燧條)에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 재군북십리(在郡北十里) 남응죽도봉북응수산봉(南應竹島烽北應戌山峰)’이라 한 것과 같이 거진읍 및 죽도봉수, 마차진 봉수가 한 눈에 들어오고 있어 기록대로 이곳에 봉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성군 문화공보실의 황광율(전문위원)씨도 약 40년 전에는 이 곳에 마차진봉수대보다 더 확실하게 방형의 석축이 남아 있었다(앞서 언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내용과 일치)고 하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건봉사(乾鳳寺) 보림암지(普琳庵址)(사진 9)

소재지 :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

보림암은 보림선사(普琳禪師)가 533년 창건한 후 1523년, 1878년 중수하였으며 1880년 화재로 전소되어 1881년 벽오(碧梧), 환응(幻應)스님이 중건하였다. 1897년에 다시 학림(鶴林)·용성(龍成) 스님이 중수하였다. 보림암은 민통선 지역 내에 위치하여 일제 때 이후로 실제 확인된 예가 없었으나 금번 조사에서 옛 기록대로 건봉사 서쪽 1.5km지점에 실재함이 확인되었다.

건봉사의 적멸보궁 서편으로 있는 계곡을 따라 1.5km올라가면 두 갈래의 계곡이 나오는데 바로 좌편(남쪽) 계곡으로 100m 정도 위쪽의 바위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암자터는 현재 기단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남북향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고, 북편 지역으로 일부 기단벽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암자 건물이 있던 기단 앞에는 크고 작은 기둥형태의 초석 4기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 지역은 10여m 높이의 낭떠러지이고 그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암자터에는 현재 기와가 깨어지지 않은 채 겹겹이 쌓여 있고 기둥으로 쓰였던 목재가 불에 타 있거나 썩어가고 있다.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자연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산불이 나면서 일부 목재가 불에 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암자터 남서쪽으로는 당시 모습 그대로의 굴뚝이 남아있다. 현 굴뚝의 규모는 100×100×190cm정도이다. 주초석 및 건물터로 볼 때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뚝에서 남서쪽 11.5m 거리에 산신각터와 암자터에서 위쪽 30m 거리의 암벽에 172×219cm크기로 방향의 음각선을 구획하고 그 안에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을 120자(字)정도로 음각한 글과 대형의 제단이 잘 남아 있다. 이 유적은 앞으로 민속신앙 및 불교사 연구에 흥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토성면

토성면에서는 모두 25개소의 유적이 확인·조사되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선사유적 1, 고려 3, 조선 14, 기타(미상) 7건이며, 종류별로는 모두 14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토성면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청간정(淸澗亭)(사진 10)

소재지 : 토성면 청간리

토성면 청간리 81-1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청간정은 본래 청간역(淸澗驛)의 정자였다고 하나 그 창건 연대나 창건자가 분명치 않다. 다만 조선 명종 10년(1555)에 간성군수 최(崔) 이 중수(重修)한 기록과 현종 3년(1662)에 최태계(崔泰繼)가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당시 좌상(左相) 송시열(宋時烈)이 금강산에 머물다가 이곳에 들러 친필로 “청간정(淸澗亭)”이란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고성군지(高城郡誌), 1986, 향로봉(香爐峰)의 맥(脈) 1982) 그후 갑신정변 때에 전소된 채 방치되었다가 1928년 토성면장 김용집(金鎔集)등의 발의로 현재의 정자를 재건하였으며 1953년 중수, 1980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자는 190cm 높이의 12개 돌기둥을 주초석으로 하여 그 위에 3칸×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중층루정으로 주위에는 잔잔한 대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1997년 4월 11일 산불이 이 지역까지 번졌을 때, 이 대나무로 인해 청간정의 북동편 모서리 난간과 기둥 1기가 불타기도 하였다. 현 정자의 ‘청간정(淸澗亭)’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다.

이와 같이 주지하고 있는 내용을 이 글에 다시 언급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앞서 언급한 송시열 선생의 친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현 정자의 북서쪽 약 100m 거리에 해발 약 20m의 바위산(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임)이 있는데, 이 산 암벽에 행서로 ‘청간정(淸澗亭)’이라 종(從)으로 새겨져있다. 글자의 평균 크기는 종(從) 50cm×횡(橫) 38cm이다. 그리고 이 글 서편의 암벽에는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선생의 친필인 ‘만경대(萬景臺)’라는 각자(刻字)(초서)가 있다. 글자 크기는 종(從) 49cm×횡(橫) 30cm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만경루(萬景樓)’에 대한 설명과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좌군남사십리만경대남일리이임간수(左郡南四十里萬景臺南一里以臨澗水(중략))”라는 내용이 사실임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나. 만경대(萬景臺)(사진 11)

소재지 : 죽왕면 청간리 청간정 북편

청간정 북서편 약 10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해발 약 20m 바위산을 가리켜 만경대라 한다.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어 민간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좌군남삼십리남빈(左郡南三十里南濱)”라 하였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지(卷之) 사십오(四十五)>>에는 만경루(萬景樓)에 대해 “재청간역 동수리유석봉돌기층층여대(在淸澗驛東數里有石峯突起層層如臺) 기고수십(基高數十) 상유사송수주(上有蛇松數株) 대동구소루(臺東構小樓) 대하개난석차아삼해(臺下皆亂石嵯峨插海) 수청철저풍래즉경도난박석상비설사산진기관야(水淸徹底風來則驚濤亂撲石上飛雪四散眞奇觀也)”라 하였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만경대(萬景臺)에 대해 “재군남사십리천후산일지임해석봉여축(在郡南四十里天吼山一枝臨海石峯如築)”이라, <<연려실기

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권지십육(卷之十六) 지리전고(地理典故) 산천형승조(山川形勝條))에는 간성(杆城) 청간정(淸澗亭)에 대해 “재군남사십리(在郡南四十里) 석봉돌기(石峰突起) 층층여대(層層如臺) 고루십(高樓十) 상유사송수주(上有蛇松數株) 대동유만경루(臺東有萬景樓) 대하난석(臺下亂石) 차아삽해(嵯峨插海)”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 산의 지세나 소나무 형태가 기록과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바다에 솟아있는 형국은 아니었다. 이는 이 지역에 군사시설이 설치되면서 매립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앞 항의 청간정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이 대(臺)에는 조선조 4대 명필로 유명한 봉래 양사언 선생의 ‘만경대(萬景臺)’라는 글씨와 송시열 선생의 ‘청간정(淸澗亭)’이라는 친필이 암벽에 새겨져 있고, 대(臺) 앞쪽에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바 있는 조석여(曹錫輿) 불망비와 열녀 연안김씨여각이 자리하고 있다.

4. 죽왕면

죽왕면에서는 모두 16개소의 유적이 확인·조사되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선사 4, 통일신라 1, 고려 1, 조선 9, 기타 1건이며, 종류별로는 9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양양 오산리유적에 비견되는 신석기유적이 고성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어 신석기 고고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죽왕면에서 조사된 유적 중 역사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암리(文岩里)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유물(遺物)산포지(散布地)(사진 12)

소재지 : 죽왕면 문암리

이 산포지는 죽왕면 최남단으로, 동해안에 면해있는 해발 41.9m 야산의 남쪽에 면하여 자리하고 있다. 유적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야산이 감싸 안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넓은 평야와 문암천이 흘러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약 400m 거리에 동해안이 있어 신석기시대인들의 생활근거지로서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유적의 일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은 민가들이 들어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수해방지 목적으로 폭 3m 깊이 1.5m 정도의 수로가 지나고 있어 이 유적의 중요부분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유물은 마을 뒤편 텃밭과 야산의 하단부에서 채집되었다. 특히 유물이 집중 수습된 곳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묻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던 지역에서였다. 수로의 단면에서 나타난 지표하 약 90cm에서의 진흙포함층과 구덩이를 팠던 곳에서 유물이 주로 채집되는 것으로 볼 때 포함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서 수습된 토기는 구연부분에 주로 압날에 의해 시문된 다양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부형태는 모두 평저이다. 또한 용기문 토기가 다량 수습됨으로써 이 유적의 성격 및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수습된 유물 중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5-①】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속심 모두 황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에 손톱무늬와 같은 조문(爪文)이 4열(列) 압날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구연은 직립하나 밖으로 약간 외반하며, 구연단은 평탄하며, 구연의 내측은 단이 저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장석·운모립이 다소 합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잔존길이 6.5cm.

【도면 5-②】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속심 모두 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은 거의 직

립하다가 외반하며 구연단은 평탄면을 가진다. 기면은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외면에는 구연 바로 아래 종주(縱走)점열문이 일정 간격으로 평행하게 압날되어 있으며, 그 아래 능형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겹쳐서 찍혀져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종주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장석립이 함입되어 있고,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잔존길이 4.7cm.

【도면 5-③】 구연부편으로 외면은 갈색, 내면과 속심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문양은 반죽관문(半竹管文)으로 구연 바로 아래에 압날되어 있다. 반죽관문은 3열(列)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겹치게 압날하였고, 제일 아래줄에서 위쪽으로 압날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장석·운모 등의 석립이 함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잔존길이 4.5cm.

【도면 5-④】 구연부편으로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고 있다. 무문양토기이며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구연은 거의 직립하며,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연내측은 한 번 단을 지우며 꺾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운모·석영립이 소량 함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잔존길이 6cm.

【도면 5-⑤】 구연부편으로 외면 갈색, 내면 암갈색, 속심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석영·운모 등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연은 안쪽으로 살짝 내반하였으며, 구연단은 바깥쪽은 직립하고 내측은 단을 지우면서 외반한 상태를 보여준다. 문양은 구연부에만 시문되어 있는데, 구연 1cm 아래 지점부터 손톱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열이 압날되어 있고, 그 아래 음각 중행 집선문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에 다시 손톱무늬 1열을 압날하였다. 도상 복원 지름 27.5cm,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①】 용기문토기 구연부편으로 외면 회갈색, 내면 황갈색, 속심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모래가 다소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구연부는 거의 직립에 가까우며, 구연단은 평탄면을 가진다. 문양은 우선 구연 아래 약 2cm 되는 지점에 좌하(左下)에서 우상향(右上向)으로 비스듬하게 점토띠를 돌리고, 띠 아래부분에 종주어골문과 같은 문양의 점토띠를 붙였다. 점토띠에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엄지와 검지로 띠 양쪽을 눌러 접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띠 단면은 삼각형이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②】 용기문토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속심 모두 회갈색의 색조를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석영과 장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구연부는 직립, 구연단은 평탄면을 가진다. 문양은 구연 바로 아래부터 시작하여 우하향(右下向)으로 비스듬하게 점토띠 한줄을 부착하였으며, 띠단면은 평편한 타원형을 띠고 있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③】 용기문+빗살문 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황갈색, 속심 갈색의 색조를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작은 모래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소성은 양호하다. 문양은 중앙에 가로로 용기문띠를 부착하고 그 위에 단면 삼각형의 도구를 사용 일정한 간격으로 눌렀다. 그리고 띠 상하에 패각과 같은 시문구를 사용한 종주 점열문이 비스듬하게 압날되어 있다. 테쌍기에 의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④】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속심 모두 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으며, 소성은 양호하다. 문양은 우선 점열능형문을 가로로 연속하여 압날하였고, 글 아래에 ‘<’모양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연속하여 압날한 띠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종주점열문을 압날하였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벽후(器壁厚) 0.8cm.

【도면 6-⑤】 용기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황갈색, 속심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문양은 동체부에 점토띠 3열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시문(부착)하였는데, 띠가 떨어져 나간 부분은 깊게 패여 있다. 점토띠 단면은 대체로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벽후(器壁厚) 0.8cm.

【도면 6-⑥】 용기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속심 모두 적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로 가는 모래가 혼입되었으며, 소성은 보통이다. 문양은 동체부에 폭 0.8cm 정도의 단면 반원형의 점토띠 한 줄이 부착되어 있다. 테쌍기수법으로 성형. 기벽후(器壁厚) 0.9cm.

【도면 6-⑦】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갈색, 속심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문양은 횡주어골문처럼 시문구로 압날하여 점열어골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⑧】 용기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속심 모두 회갈색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소량의 석영 및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문양은 단면 삼각형의 점토띠가 좌상에서 우하향으로 비스듬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지두흔이 분명하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테쌍기 수법에 의해 성형. 기벽후(器壁厚) 0.8cm.

【도면 6-⑨】 용기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내·외면은 회갈색, 속심은 흑갈색의 색조를 띠며, 태토는 고운 점토에 소량의 석영립과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문양은 폭 0.8cm 가량의 단면 타원형의 점토띠를 두 곳에 부착하였으나, 일부만 잔존하고 나머지는 결실되어 그 흔적만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6-⑩】 동체부편으로 내·외면 황갈색, 속심은 흑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으며, 태토는 사질점토에 가는 모래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소성은 보통이다. 문양은 동체부에 횡으로한중의 침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횡으로 점열문을 압날시문하였고, 다시 그 아래에 침선,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물손질한 것이 관찰되나 박락이 심하며 테쌍기에 의한 수법이 관찰되고 있다. 기벽후(器壁厚) 1.0cm.

【도면 7-①】 저부편으로 내·외면 갈색, 속심은 회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고, 저부의 바깥쪽에 나뭇잎이 찍힌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벽후(器壁厚) 0.7cm.

【도면 7-②】 평저의 저부편으로 전체적으로 갈색을 띤다. 태토는 석영·장석·운모 등의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동체부 결면에는 폭 0.5cm 정도되는 도구로서 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저부와 동체부 접합시 늘렸던 지두흔이 남아 있다. 저부안쪽은 박리가 심한 편이다. 잔존높이 2.8cm.

【도면 7-③】 평저의 저부편으로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장석·운모가 혼입되어 있고,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저부와 연결된 동체부 표면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서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저부와 접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잔존높이 5.4cm.

【도면 7-④】 어망추로, 화강암제 강자갈을 사용하였다. 양쪽 측면을 양방향으로 떼어내어 얇은 홈을 만들었다. 장(長) 6cm, 폭 5.1cm, 후(厚) 1.8cm.

【도면 7-⑤】 지석(砥石)으로 암질은 반암계통이며 작은편으로 도면상 윗면과 앞면만이 잘 갈려져 있고 나머지 면들은 결실되거나 박리되었다. 장(長) 6.4cm, 폭 4cm, 후(厚) 2cm.

나. 삼포리(三浦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사진 13)

소재지 : 죽왕면 삼포리

유물산포지는 죽왕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600m 거리에 동서로 길게 뻗은 해발 40~50m의 야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야산 능선과 사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유적은 동편이 동해바다에 면해 있으며 북으로는 인정천(仁亭川)이 가로지르는 넓은 농경지(논)가, 남쪽과 서쪽으로는 비교적 낮은 야산들이 자리하고 있어 산포지의 정상부에서 바라보면 사방이 트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정상부에는 통일신라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대와 관련한 방형기단이 잘 남아있다. 유물은 봉수단이 있는 곳으로부터 서편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반야사 뒤편으로 나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쪽의 경사면에서 무문토기와 공열토기 및 반달돌칼, 석촉, 돌도끼 등 다양한 종류가 채집되었다. 또한 이 능선과 더불어 좌우로 가지처럼 뻗어 있는 능선에서도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 이 일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유물 중 중요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7-⑥】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외면 황갈색, 내면 연한갈색, 속심 회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고운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저부 외벽에는 물론 질한 흔적이 남아 있고, 저부는 평저로 동체부와 별도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잔존높이 2.5cm, 복원지름 8cm.

【도면 7-⑦】 공열토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띤다. 거친 태토에 다량의 석영립이 혼입되어 있다. 공열은 구연단에 가깝게 시문되었는데 매우 조밀한 간격으로 안쪽에서 뚫었다. 원래 반투공이었으나 일부 파손에 의해 관통된 구멍도 있다. 구순부는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기벽후(器壁厚) 7.9mm.

【도면 7-⑧】 공열토기 구연부편으로 외면 황갈색, 내면 회백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거친편으로 다량의 석영립과 소량의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공열은 넓은 간격으로 구순부에 인접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관통하였다. 구순부는 안쪽이 둥글고 바깥쪽은 직각에 가깝다. 기벽후(器壁厚) 9.7cm.

【도면 7-⑨】 안산암제 반월형 석도편으로 전면이 잘 마연되었다. 등부분은 평탄하게 마연하였으며, 단인(單刃)으로 여러곳에 결손이 있다. 구멍은 2개가 남아 있는데 모두 양쪽에서 뚫었으며 뚫다가 그만 둔 구멍이 하나 있다. 장주형(長舟形)이다. 후(厚) 7mm.

【도면 8-①】 사암제 지석편으로 지표에 노출되어 많이 풍화된 상태이다. 지면(砥面)은 두군데 남아 있는데 매우 평탄하다. 일부타격에 의해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6.8cm.

【도면 8-②】 화장암질 편마암제 마제석기편으로 미완성 마제석부로 추정된다. 인부(刃部)는 타격에 의해 1차 성형후 마연하였으나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반 이상이 부러져 결손되었으며, 인부(刃部)는 사용에 의해 파손이 심하다. 후(厚) 22.4mm.

【도면 8-③】 점판암제 마제석촉으로 삼각만입형으로 단면 평편육각형이다. 봉부(鋒部)는 결손되었으며 저부는 양쪽에서 구멍을 뚫은 후 살대 장착부위를 만들었다. 저부 대부분은 결손되었다. 후(厚) 2.4mm.

다. 인정리(仁亭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사진 14)

소재지 : 죽왕면 인정리 594번지 일대 및 주변

이 산포지는 죽왕면 면사무소가 있는 오호리에서 서편으로 1.5km 떨어진 해발 60m 야산 능선상에 분포한다. 주변환경은 남쪽으로 인정천이 감싸고 돌아 흘러가고 동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아마도 옛적에는 석호(瀉湖)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평지지역 건너 동편에는 삼포리 유물산포지가 자리하고 있어, 동해안 지역에서 선사 유적이 석호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능선의 남쪽사면에는 인정1리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의 발견은 인정리 마을 주민인 김현철씨가 석검 및 돌도끼를 소장하고 있어, 출토지의 안내를 받으면서 주변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유물은 대부분 능선상에서 주로 수습되었으며, 공열토기·석촉·숫돌 등이 수습되었다. 한편, 능선의 서편지역에서는 1기의 지석묘도 확인되었는데, 장축 210cm, 단축 200cm, 두께 40cm의 판석과 길이 130cm, 높이 80cm 규모의 지석이 남아 있다. 수습된 중요유물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도면 8-④】 공열토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황갈색의 색조를 띠나 일부 박리 현상으로 검은 부위가 있다. 태토는 거칠고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운모와 장석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추정직경이 약 30cm 가량되는 대형토기로 구연은 직립에 가까우며 구순부는 안쪽이 등글고 바깥쪽은 각이 졌다. 테쌓기 수법에 의해 성형되었다. 공열은 안쪽에서 뚫었으며 간격과 위치가 불규칙하다. 후(厚) 8mm.

【도면 8-⑤】 사암제 지석편(砥石片)이다. 4각 기둥형으로 매우 고운 지면(砥面)이 4면에 있다. 한쪽이 더 굵은 형태로 반파되어 반정도 결손되었다. 잔존길이 4.5cm

【도면 8-⑥】 점판암제 삼각만입형 석촉이다. 촉신부가 오목하게 들어간 단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부(刃部) 및 점면에 정밀한 마연이 이루어졌다. 장 5.4cm, 최대폭 1.7cm, 후(厚) 0.2cm.

라. 죽도성지(竹島城址)(사진 15)

소재지 : 죽왕면 오호리 죽도

죽도성은 오호리에서 정동(正東)으로 보이는 해발 약 53m 높이의 작은 섬에 위치한다. 오호항에서 어선으로 약 5분정도의 거리이다. 섬의 형세는 평면상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장축방향이 남동-북서이며 북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성은 간성군의 남쪽 20리, 바다쪽 육로에서 2리 떨어진 죽도에 있는데 둘레가 2리 조금 넘고, 섬 위에는 영사(營舍)의 옛 터가 있으며, 오동(梧桐)과 전죽(箭竹)이 가득했다고 하였다. 이 섬은 영사나 성으로서보다는 남쪽 양양·덕산봉수와 북쪽 정양산 봉수에 연락하던 죽도봉수가 더 유명하다고 하였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죽도면 오호리의 국유(國有)지에 있으며 “오호리(五湖里) 부락(部落)의 동북(東北) 약(約) 8련(鍊)(872m)의 해상(海上) 죽도(竹島)에 있음. 토축(土築) 연장(延長) 약(約)삼백간(三百間)(363m)이나 불완전(不完全)함”이라 하였다.

현지 조사결과, 전죽이 300~400cm 정도로 크게 자라고 있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성의 입구 시설로 보이는 돌계단을 확인하였으며, 섬 정상부분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초석군(礎石群)과 기와가 누적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였는데, 뺨뺨한 전죽(箭竹)으로 인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었다. 또한 토성의 흔적은 전죽이 너무 울창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상부 하단에 단이 진 것으로 보아 옛 기록과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5. 현내면

현내면에서는 모두 15건의 유적이 확인·조사되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선사 3, 삼국 1, 통일신라 1, 고려 6, 조선 3, 기타 1건이며, 종류별로는 모두 9종류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현내면에서의 조사된 유적중 역사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죽정리(竹亭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사진 16)

소재지 : 현내면 죽정리

이 유적은 화진포호수 중심부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콧(串)처럼 튀어나온 야산 능선상에 산포지(I)가 있고 또한 이 콧 북쪽에 서편으로 내만되어 있는 지형의 산록에도 산포지(II)가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주변에는 지식묘군이 함께 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산포지 I 지역에서는 석검과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산포지 II 지역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류와 갈들, 석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산포지 II 지역에서의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특징을 가진 것들이고 입지상으로는 청동기시대와 결부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곳에서 수습된 중요유물은 다음과 같다.

【도면 8-⑦】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으로 외면 갈색, 내면 흑갈색, 속심 흑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모래가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은 양호하다. 기면은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성형시 손누름 자국과 횡방향의 조정흔이 보인다. 외면에는 침선에 의한 지(之)자형태의 중주(縱走)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기벽후(器壁厚) 1.0cm.

【도면 9-①】 조립질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한 갈판(연석(礪石))이다. 평면 장방형태이나 한쪽부분은 깨어져 결실되었다. 상면은 사용에 의해 갈린면이 약간 오목하고, 뒷면에는 한쪽부분으로 편평하게 간면이 남아 있어 매끄럽다. 현재의 장(長) 19.2cm, 최대폭 8.3cm, 최대후(厚) 2.5cm.

【도면 9-②】 점판암질의 석재로 만든 2단 유경식 석검이다. 검신의 봉부(鋒部)가 멸실되었다. 등날의 흔적은 없으나 혈구가 양면에 2개씩 새겨져 있다. 경부는 부(部)없이 검신에서 약간의 단을 지우며 제1단은 짧게 만들고, 제2단은 장방형이다. 전면적으로 마연상태가 불량하다. 잔존전장(全長) 13.7cm, 잔존신부(身部) 6.2cm, 경부 7.5cm.

나. 죽정리고려고분군(竹亭里高麗古墳群)(사진 17)

소재지 : 현내면 죽정리

이 고분군은 고성 화진포 호수 북서편 해발 30~40m 야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르는 길은 죽정초등학교 입구에서 7번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600m 가면 화진포콘도 진입로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약 850m를 더 진입하여 동편야산 기슭으로 약 100m 정도 오르면 된다. 경사면에 고려시대 질그릇편들이 산재하여 있고 고분의 봉토(3-4기)로 생각되는 곳이 유수(流水)에 의해 자연적으로 계속 유실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토기편들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명기로 보이는 녹유대접 1, 완 2, 발 1, 청동그릇 1, 청동숟가락 1, 토기편 다수가 수습되었다.

【도면 9-③】 청자 화형전접시로 안굽, 동체는 약간 외반되었으며 화형의 전이 구연을 이루고 있다. 내면은 화형 주름장식이 되어 있다. 도범(陶范)에서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다. 고(高) 2.8cm, 구경(口徑) 10.4cm, 저경(低經) 5.8cm.

【도면 9-④】 청자완이다. 안굽,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은 모래 받침 번조, 접지면에 노(爐)의 찌꺼기가 일부 부착되었으며,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다. 내저면 및 굽주위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유(釉)가 탈락하여 노태(露胎)가 되었다. 고(高) 4.8cm, 구경(口徑) 13.3cm, 저경(底經) 5.9cm.

【도면 9-⑤】 청자대접이다. 죽절굽, 굽은 모래 받침 번조, 동체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은 직립한다. 내면 구연아래에 2줄의 백토상감선이 있으며 내저면은 깊다. 전체적으로 기형이 찌그러졌다. 내저면 및 구연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유(釉)가 박락되어 노태(露胎)되었다. 고(高) 9.2cm, 구경 19.5cm, 저경 6.5cm.

【도면 10-①】 청자대접이다. 죽절굽, 굽은 모래받침 번조, 동체는 완만하게 외반되었다. 내면 구연아래에 1줄, 내저면에 1줄씩의 백토상감선이 있으며 내저면 중앙부는 오목하다. 유(釉)는 내면에 1/2정도만 남아 있는데 두텁고 불투명하며 기포가 심하다. 구연부는 균열이 있고 일부 결손이 있다. 고(高) 6.9cm, 구경 18cm, 저경 6.4cm.

【도면 10-②】 녹갈유 대접편이다. 죽절굽, 내화토 받침 번조, 태토는 정선되지 않았으며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각 4개소의 받침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겹 쌓아 소성한 것으로 보이며, 기벽 내·외면에 깨어진 다른 도편(陶片)이 일부 남아 있다. 동체는 중상부에서 내만한 후, 구연부는 다시 외반하였다. 시유상태가 불량하며 노태(露胎)된 부분이 많다. 고(高) 7.6cm, 구경(口徑) 18.3cm, 저경(低經) 7cm.

다. 마차진리(麻次津里) 봉수지(烽燧址)(사진 18)

소재지 : 현내면 마차진리 봉수봉

대진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명파리로 넘어가는 쑥고개의 우측(동편) 해발 133m 봉화봉 산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있고 해발표고도 주변지역 보다 높은 곳이어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30년 된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들이 우거져있어 유적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봉수대는 산 정상부를 삭평한 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조는 정상을 중심으로 봉수대와 봉수대 바깥으로 1차 석축 기단을 두르고 석축기단 바깥으로 방화벽의 용도로 사용된 토루가 둘러져 있다. 따라서 토루(1단)+석축(1단)+봉화대기단으로 모두 3단의 전형적인 봉수대의 구조를 띠고 있다. 봉화대의 현 잔존 높이는 약 2.2m, 윗부분의 지름은 약 6m 정도이고, 봉화대 기단 둘레는 약 52m이다. 봉화대기단과 석축기단과의 거리는 8.4m, 그 둘레는 약 90m정도로 추정된다. 또 석축 기단에서 바깥의 토루까지의 거리는 9-10m 정도이다. 축조하면서 사용된 석재는 주로 자연석(10×20, 20×50cm)을 이용하였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마차진리부락(麻次津里部落)에 서북(西北) 약사백간(約四百間)(727m)의 산정(山頂)에 있음. 주위(周圍) 약이십간(約二十間)((36m). 석총(石塚)의 주(周)에 토루(土壘)가 있고 불완전(不完全)’이라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상)》에는 ‘쑥고개 봉화대라고 불리며 석축(石築)의 길이 약 6m, 높이 60cm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그 이후의 여러 지리지에는 이 봉수지의 명칭을 술산봉수(戌山烽燧)라 밝히고 있고, 남쪽으로 13km거리인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거진읍 반암리 소재)와 북쪽 고성군의 구장천(仇莊遷) 봉수사이에서 신호전달을 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봉수지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기편과 와편들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병들의 주거시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조제암지(鳥啼庵址)(관음암지(觀音庵址))(사진 19)

소재지 : 현내면 명파리

현내면 명파리 마을 북편의 명파 2교에서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좌측(서편)으로 나 있는 비포장의 농로를 따라 약 6km를 진입하여 들어가면 향로봉 산맥 동편 계곡 깊숙한 곳에 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本末寺蹟)》에 의하면 조제암은 혜공왕 8년(772)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創建)하고 당시에는 관음암(觀音庵)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그리고 고려 공민왕(恭愍王) 1년(1358) 퇴옹선사(퇴翁禪師)가 증건하였으나 여말에 전소하였고, 그 후 세조 10년(1465)에 증건하고 조제암(鳥啼庵)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간성군(干城郡) 사찰조(寺刹條)에는 “조제사(鳥啼寺) 재군북육십오리(在郡北六十五里) 팔간(八間)”라는 기록이 있다.

조제암지(鳥啼庵址)는 건물지 축대가 계단식으로 2단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울창한 수풀로 인해 초석과 관련유물은 발견·수습할 수 없었다. 잔존하고 있는 축대의 규모는 길이 약 9m, 높이 약 1m 정도이고 두 축대간의 거리는 8.6m이다. 진입로 및 전면에 비교적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계단식 산지가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활엽수가 우거져 있고, 전면에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관음암지(觀音庵址)(윗절터)는 조제암에서 계수(溪水)를 따라 약 3분 정도 올라가면 약 1,500여 평의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약 40-50년 생의 활엽수가 울창히 우거져 있는 곳이 나오는데 관음암지는 이 평지의 상단(산자락이 끝나는 곳)에 위치하며 2단 석축의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앞쪽기단은 길이 약 25m, 높이 50cm 규모이며, 뒤쪽기단은 ‘ㄷ’자 형태로 길이 15m, 높이 45cm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녹음이 우거져 건물지의 정밀조사가 어려우나 6·25전까지 1동의 사우에 법당과 요사의 기능을 겸했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단 석축은 자연석을 이용, 정연하게 축조하였고 건물지 초석 일부와 외편 다수가 확인된다.

마. 금구도성지(金龜島城址)(사진 20)

소재지 : 현내면 초도리 금구도

초도항에서 직선으로 약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섬인 금구도에 위치한 성지로, 6.25이후 지금까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관계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해송, 전죽(箭竹), 해당화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섬의 명칭은 화진포호수 쪽에서 바라보면 거북의형상을 하고 있어 금구도(金龜島)라 불려졌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초도고성(草島古城)’으로도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일제 때의 조사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의하면 ‘현내면(縣內面) 초도리(草島里) 국유(國有) 초도리부락(草島里部落)의 동방약이백간(東方約二百間)(368m)의 海上 金龜島에 있음. 延長 약백이십간(約百二十間)(218m) 대부분(大部分) 토축(土築) 불완전(不完全)’이라 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성의 구조는 2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섬의 정상부인 약 45m 높이의 고지를 중심에 두고 해안선의 자연 지형을 따라 화강암을 이용 석축으로 축조하고, 성벽 상단은 삭토하여 환도를 개설한 흔적이 200여m 가량 뚜렷이 남아 있다. 이와 연하는 북쪽의 암석 저지대는 잔돌끼움 쌓기의 협축법으로 석축한 불연속의 (추정)외성이 3개 구간에 남아 있다. 현재 잔존하여 있는 길이는 약 60m, 높이 170~230cm, 협축벽간 거리 약 350cm이다. 해송의 군락이 있는 부근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전죽이 우거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건물의 주초석(50cm×50cm)과 기와편,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유물 및 성벽의 축조기법으로 보아 북방 세력의 남하, 빈번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열산현(烈山縣)의 수성처(守城處)로 추정된다.

V. 맺 음 말

금번 고성군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에 비하여 질적(質的)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새롭게 많이 발견·조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결과 몇몇 성과와 의의에 대하여 약술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이번에 보고하는 총괄적인 유적지명표는 뒤에 붙이는 <표(表) 1> ~ <표(表) 3> 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신석기시대 유적 확인·조사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문암리(文岩里)와, 간성읍(杆城邑) 동호리(東湖里)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석기가 다량 채집됨으로써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문암리 유적에서는 외벽에 점토를 덧대어 무늬를 만든 융기문(隆起文)과 손톱무늬(아가리부분에만 시문(施文)), 종(縱)으로 시문한 점열(點列)무늬, 점열문+융기문 복합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시문한 회갈색조의 토기들이 채집되었고, 이들의 기형은 주로 발형(鉢形)이며, 저부(底部)는 모두 평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토기는 본 유적보다 남쪽에 위치하는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사적 제 394호)에서 다량 출토된 바 있고 한반도 동북지방의 서포항, 강상리, 농포동 유적과 서북지방의 신암리, 토성리 유적 등에서도 출토된바 있어 이들 지역간의 교류관계, 유적의 입지 환경 주거지의 구조, 토기 제작기술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과 남한소재 신석기 문화의 전파과정과 경로를 밝혀주는 좋은 자료라 여겨진다. 또한 동호리 유적에서는 방형을 띤 압날문, 횡주 어골문, 평행집선문과 같은 압인문이 시문된 황갈색 및 적갈색을 띤 토기와 마제돌도끼 등 30여점의 유물이 지표채집되어, 신석기시대 주거지군(群)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유적들의 형성시기는 채집된 유물로 보아, 문암리유적은 B.C. 5천년~4천년, 동호리 유적은 B.C.3천년~2천년 경의 것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거뒀고 또한 앞으로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동기시대 유적 확인·조사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 5개소와 지석묘군(群) 1개소를 새로이 발견하였다. 추정 주거유적은 죽왕면(竹旺面) 삼포리(三浦里), 인정리(仁亭里), 간성읍(杆城邑) 동호리(東湖里), 거진읍(巨津邑) 원당리(源塘里), 죽정리(竹亭里) 등에 고루 분포하며 청동기시대 묘재인 지석묘군은 화포리(花浦里)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들은 대부분 바닷물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석호(瀉湖)는 지형학상 사취(砂嘴)나 사주(砂洲) 등 모래톱의 발달로 만(灣)의 입구가 좁혀짐으로써 호(湖)·소(沼)가 형성되는 해안지형을 이룸. 기원전4,000년경에 형성)나 과거 석호였던 곳의 주변야산(해발 20~50m)기슭이나 능선부에 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청동기시대인들은 이와 같은 석호 주변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동북지방 대표적 토기인 공열(孔列)토기가 채집되었고 또한 무문토기들과, 석제 화살촉, 돌도끼, 방추차, 어망추, 반월형 석도, 석검 등 많은 양의 유물들이 수집되어 유적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고성군내 관광지로 유

명한 화진포 호수가에 자리한 원당리 유적과, 죽정리 유적에서는 신석기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빗살무늬 토기와 갈판 등이 무문토기와 함께 나오고 있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문화특성을 규명하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고구려 산성 및 고려시대 봉수 확인 · 조사

고성군은 해안에 면해있고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 방어 시설인 관방유적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결과, 고구려 ·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금수리(金水里) 산성(山城)과 해안지대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금구도(金龜島), 죽도(竹島) 등 매우 작은 섬에도 토성 · 석성 · 봉수시설을 골고루 갖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 · 조선시대에 북방민족과 왜구들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3개의 봉수터(죽도(竹島)↔정양산(正陽山)↔마차진(麻次津))를 발견 · 확인하였다. 특히, 금수리 산성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그 기록(고구려 : 성(城), 고려 : 수성(守城))이 있는 중요 유적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 성의 초축(初築)이 문헌기록과 일치되게 성의 기저부를 10~20cm씩 들여 쌓으면서 축성하고 또 썰기돌을 활용한 고구려시대의 전형적인 축성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석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내부에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유물(와편, 토기, 청자 등)들이 다량 산포되어 있어 이 성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 신라의 변방 요충지로서 이용되었고 고려~조선시대에는 외세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유적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4. 건봉사(乾鳳寺) 부속암자 보림암(普琳庵)(지(址))와 말사(末寺) 조제암(鳥濟庵)(지(址)) 확인 · 조사

보림암(普琳庵)은 533년에 창건하고 1897년까지 4차례의 중수한 기록이 있으며 6.25이 전까지 존속되어 왔던 건봉사의 주요한 부속암자로서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한다. 국내학계에서는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건봉사(乾鳳寺) 및 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末寺事蹟)』에 의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그 위치와 현황이 처음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이곳은 20m가 넘는 암벽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었음을 알려주는 기단 및 주초석, 기둥, 기와 등이 무너진 채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암자터에서 위쪽 30m 거리에는 암벽에 172×219cm 크기로 방형의 음각선을 구획하고 그 안에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을 120자(字) 정도로 음각한 글과 대형의 제단이 잘 남아 있다. 이 유적은 앞으로 불교사학 및 민속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건봉사의 말사였던 조제암(鳥濟庵)과 그 전신이었던 관음암(觀音庵)도 함께 발견 ·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유적의 수는 모두 95건이며, 유적 종류별로는 신석기 2, 청동기 15, 고분 6, 성터 8, 봉수 4, 절터 11, 기타 49건 등으로 전시대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유적을 확인 · 조사하였으며, 이 중 민간인 통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이 17건, 새로 발견 · 확인한 유적은 20건에 이른다. 특히,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동해안 지방의 선사시대 문화상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기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 조사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성과라 판단된다.

<표 1> '97 고성군(高城郡) 지표조사(地表調査) 유적(遺蹟)의 시대별(時代別) 현황(現況)

구분(區分)		행정구역별 (行政區域別)	간성읍 (杆城邑)	거진읍 (巨津邑)	현내면 (縣內面)	죽왕면 (竹旺面)	토성면 (土城面)	계(計)
시대별 (時代別)	선사(先史)		2	9	3	4	1	19
	삼국(三國)		1	2	1			4
	통일신라 (統一新羅)		1		1	1		3
	고려(高麗)		1	1	6	1	3	12
	조선(朝鮮)		5	5	3	9	14	36
	기타(其他) (미상(未詳))		6	6	1	1	7	21
계(計)			16	23	15	16	25	95
비고(備考)	신발견유적 (新發見遺蹟)		3	5	5	3	5	21
	군사보호구역내(軍事保護區域內) 소재유적 (所在遺蹟)		1	5	9	1	1	17

*유적의 시대구분은 상한연대를 기준으로 함

*신발견 유적의 기준은 보고된 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위치나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임.

<표 2> '97 고성군(高城郡) 지표조사(地表調査) 유적(遺蹟)의 종류별(種類別) 현황(現況)

구분(區分)	정구역별 (政區域別)	간 성 읍	거 진 읍	현 내 면	죽 왕 면	토 성 면	계(計)
		(杆城邑)	(巨津邑)	(縣內面)	(竹旺面)	(土城面)	
성 (城)		2		3	1	2	8
봉수(烽燧)			1	1	1	1	4
사지(寺址)		3	1	1	1	2	8
사찰(寺刹)		1	1			1	3
부도(浮屠)(군(郡))			3			2	5
석불(石佛)				1			1
선정비(善政碑)		2		1		3	6
기념비(記念碑)		4	1			4	9
충효비(忠孝碑)		1			2	3	3
기타비(其他碑)			2			1	1
향 교(鄉校)		1					4
정(亭)·각(閣)					2	2	3
고분(古墳)	고려(高麗)			3			3
	조선(朝鮮)			2		1	3
선사시대묘(先史時代墓) (지석묘(支石墓))			6	2			8
선사유적 (先史遺蹟)	신석기 (新石器)	1			1		2
	청동기 (靑銅器)	1	2	1	2	1	7
	초기철기 (初期鐵器)		1		1		2
기 타(其 他) 석조물(石造物)			3		1		3
기 타(其 他) 목조물(木造物)			1			1	7
기 타(其 他) 유 적(遺 蹟)			1		5	1	2
계(計)		16	23	15	16	25	95

*종별구분은 「문화유적총람」(1977)의 분류방법에 의함.

<표 3> '97군사보호구역(강원도 고성군)내 문화유적 학술조사 유적목록

<간성읍의 문화유적>

연번	유적명칭	소재지	시대	수습유물	비고
1	간성향교	간성읍교동리 664	조선		문화재자료 제 104호
2	간촌리사지	간성읍 간촌리(속칭 부처바위골)	미상		
3	금수리사지	간성읍 금수리	통일신라		
4	금수리산성	간성읍금수리 고성산 (동경128°28' 북위38°22')	고구려	통일신라~고려 토기편 10여점, 청자편6점, 고구려, 통일신라 기와편 20여점	
5	건봉사포교당	간성읍 신안리 363	현대		
6	탑동리사지	간성읍 탑동리 2반	미상		
7	간성읍성	간성읍 하리, 상리 일원	고려		
8	전봉상효자비각	간성읍 교동리	조선		보수필요
9	현감택당선생이공 거사비	간성읍교동리 간성향교앞	조선		
10	간성향교기적비(명)	간성읍 해상2리	조선		
11	김치원자혜불망비	간성읍 흘 1리	일제		
12	함동석 시은비	간성읍 흘 1리	일제		비석군
13	나병규선생기념비	간성읍 흘 1리	일제		
14	상 1리비석군	간성읍 상1리(등기소 윗편)	조선		신규
15	동호리 선사 유물산포지 I	간성읍 동호1리	신석기	돌도끼 1점, 석제어망추1점, 빗살무늬토기편20여점	신규
16	동호리 선사 유물산포지 II	간성읍 동호리1리	청동기	무문토기편 수 점	신규

<간성읍의 문화유적>

연번	유적명칭	소재지	시대	수습유물	비고
1	정양산봉수지	거진읍 반암리	고려		신규, 군사설(軍施設)로 멸실
2	전참봉김의종부인 유귀녀기념비	거진읍 자산리	일제강점기		
3	건봉사	거진읍 냉천리	신라		
4	건봉사 불이문	거진읍 냉천리	일제강점기		
5	건봉사 능파교	거진읍 냉천리	조선		
6	건봉사 능파교비	거진읍 냉천리	조선		
7	건봉사 흥예교	거진읍 냉천리	일제강점기		총 3기
8	건봉사 팔상전지부도·비군	거진읍 냉천리	조선		총 5기
9	건봉사 입구부도·비군	거진읍 냉천리	조선		
10	건봉사 31인등공탑	거진읍 냉천리	일제강점기		
11	건봉사 사명대사비편	거진읍 냉천리	조선		
12	건봉사 석표·석주	거진읍 냉천리	일제강점기		총 3건
13	건봉사 보림암지	거진읍 냉천리	신라		신규
14	건봉사 석가치아사리및함	거진읍 냉천리	미상		신규
15	자산리 지식묘	거진읍 자산리	청동기		
16	화포리지석묘Ⅰ군	거진읍 화포리	청동기		총 5기
17	화포리지석묘Ⅱ군	거진읍 화포리	청동기		
18	화포리지석묘Ⅲ군	거진읍 화포리	청동기		총 2기(1기신규)
19	화포리지석묘Ⅳ군	거진읍 화포리	청동기		총 4기(3기신규)
20	화포리지석묘Ⅴ군	거진읍 화포리장평	청동기		총 1기
21	화포리선사유적	거진읍 화포리장평	초기철기	무문양토기(동체부 및 저부편)20여점, 철제도끼1점	
22	화포리선사유적	거진읍 화포리차골	청동기	화살촉(편)9점, 반월형석도(편)3점, 석제망추차(편)1점, 돌도끼(편)5점, 무문토기(편)수점	
23	원당리 선사유적	거진읍 원당리	청동기	반월형석도(편)1점, 석제어망추3점, 빗살무늬토기편수점	신규

<토성면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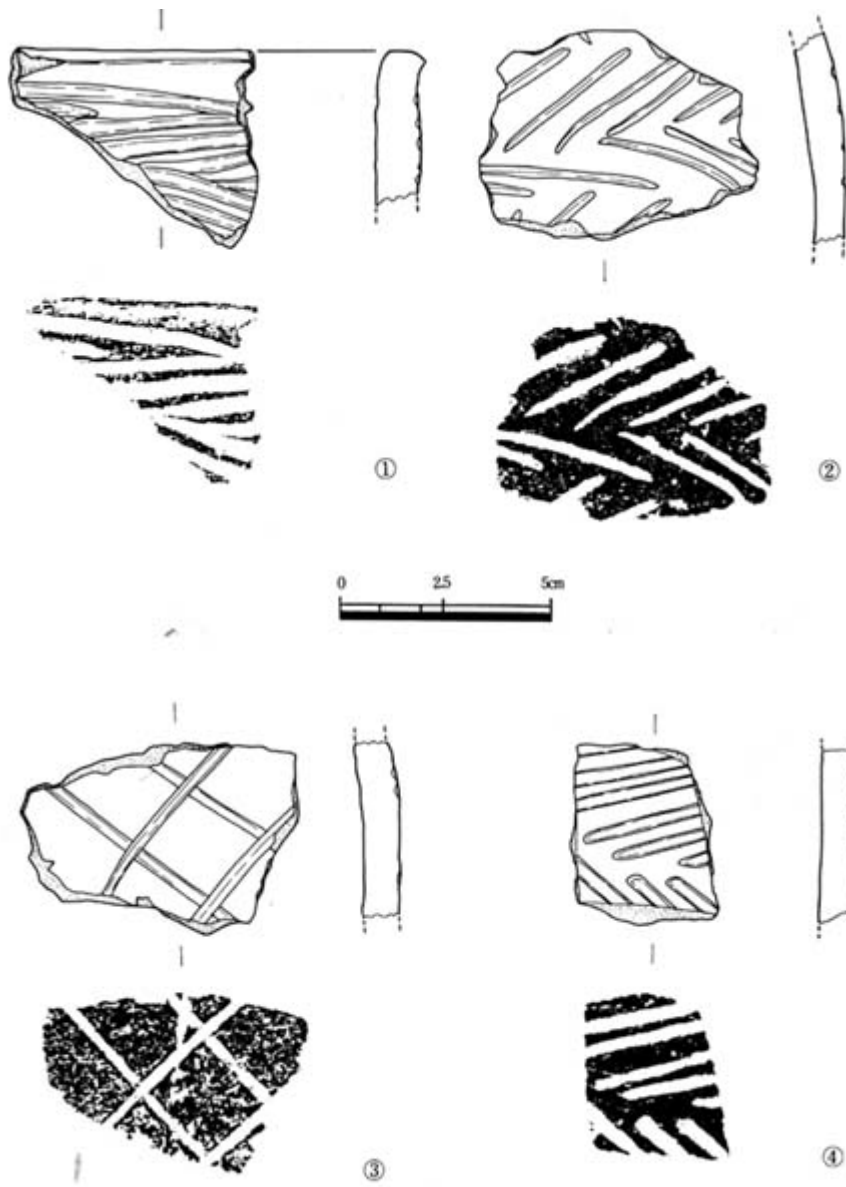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칭	소재지	시대	수습유물	비고
1	청간정	토성면 청간리	조선		
2	천학정	토성면 교암리 77	조선		
3	백촌동 토성(자사성지)	토성면 백촌리 일대	고려	기와편 수점	군(軍) 시설(施設)
4	봉포리봉수지	토성면 봉포리	고려		
5	봉포리토성	토성면 봉포리	고려	고려~조선시대 토기편5점	
6	화암사	토성면 신평리	조선		
7	화암사삼성각 서편부도군	토성면 신평리	조선		
8	화암사입구부도군	토성면 신평리	조선		
9	용촌리유물산포지	토성면 용촌리	청동기		
10	원암리사지	토성면 원암리(답벌)	미상		
11	인흥리사지	토성면 인흥리	미상		
12	친지리고분	토성면 친진리	조선		
13	가선대부김학현묘비	토성면 신평 1리(무나무골)	일제강점기		
14	증통훈 대부김두현비	토성면 신평리138	일제강점기		
15	김행음선생기념비	토성면 봉포리(비석거리)	일제강점기		신규, 이전 등 보존조치요(要)
16	가의대부이근철 불망비	토성면 아야진리 입구	조선		신규
17	아야진리제당	토성면 아야진리	미상		
18	면장한치룡기념비	토성면 교암리	일제강점기		
19	박길준(영선)가옥	토성면 백촌리 82	일제강점기		
20	이장섭송덕비	토성면 성대리	조선		
21	통정대부김정권 불망비	토성면 성대리	조선		
22	열녀영월엄씨지비	토성면 성대리 27	조선		
23	노상언 효자각	토성면 용촌2리	조선		
24	열녀 연안김씨 지려	토성면 용촌2리	조선		
25	관찰사조공석려영세불망비	토성면 청간리	조선		신규

<죽왕면 문화유적>

연번	유적명칭	소재지	시대	수습유물	비고
1	어명기가옥	죽왕면 삼포리 551	조선		중요민속자료 제31호
2	이덕균가옥	죽왕면 인정2리 419	조선		문화재자료 제77호
3	함정균가옥	죽왕면 오봉1리	고려		문화재자료 제78호
4	고성왕곡마을	죽왕면 오봉1리	조선		전통건조물보존지구 1-함형찬, 최종옥가옥
5	가학정지	죽왕면 공현진리 384일대	조선		
6	문암리초기철기유적	죽왕면 문암1리	초기철기		
7	문암리신석기유적	죽왕면 문암1리	신석기	용기문토기(편)십수점, 빗살무늬토기(편)십수점, 평저부(편)6점, 아가리편4점, 무늬없는 토기편20여점, 석제어망추 및 갈돌1점	신규
8	삼포리봉수지	죽왕면 삼포리 봉수동	통일신라		군(軍) 시설로부터 보호필요
9	삼포리선사유적	죽왕면 삼포리 봉수동일대	청동기	화살촉1점, 반월형석도(편)1점, 갈돌1점, 돌도끼1점, 공열토기편2점, 무문토기편십수점	
10	적곡사지	죽왕면 오봉2리	고려		정밀조사 필요
11	송호정	죽왕면 오봉리 용소두봉	현대		고성군의 대화재로 멸실
12	죽도성지	죽왕면 오호리 산1 죽도	조선		
13	정철수가옥	죽왕면 구성리 1반119	조선		소유주 사망
14	양근함씨사세오효자정려	죽왕면 오봉리 374	조선		
15	함희석효자각	죽왕면 오봉리 396	조선		
16	인정리 선사유적	죽왕면 인정리	청동기	화살촉1점, 석제숫돌1점, 갈돌1점, 공열토기(편)3점, 무문토기편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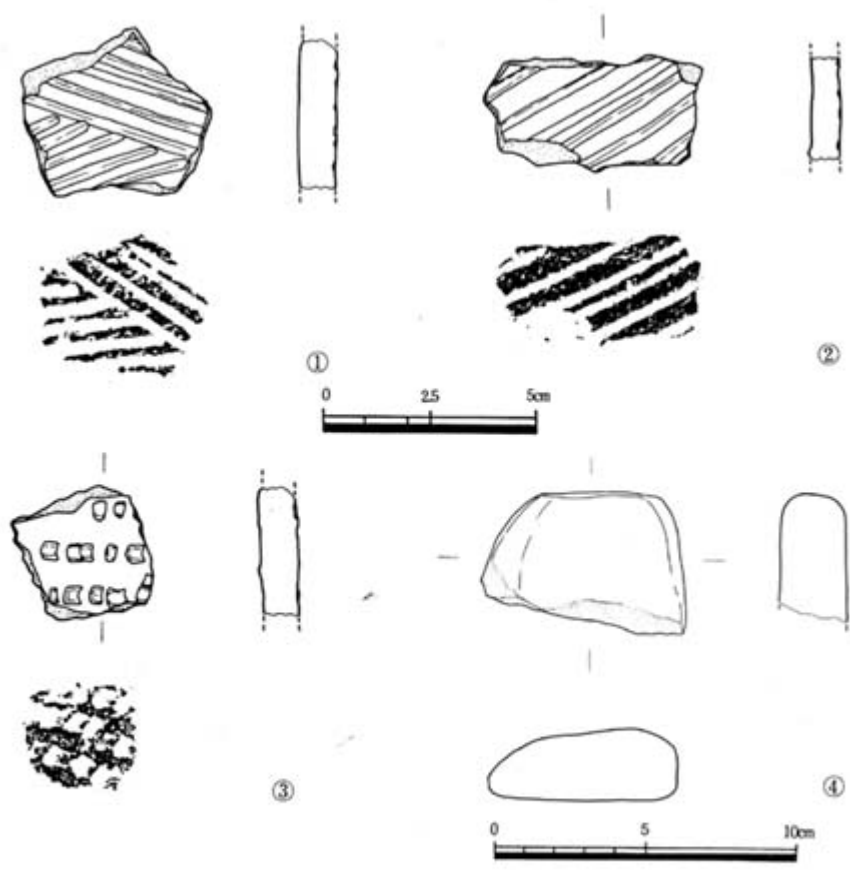
<현내면 문화유적>

연번	유적명칭	소재지	시대	수습유물	비고
1	송현진리 고분	현내면 송현진리 (금강산 전망대)	고려		
2	마차진리봉수지	현내면 마차진리 (봉화봉)	고 려?		
3	말무덤	현내면 명파리	고려		
4	명파리고려고분전	현내면 명파리	고려		
5	명파리 고분(장군 묘)	현내면 명파리 130	조선		
6	마달리 석조여래좌 상	현내면 마달리(버 스정류장)	통일 신라		
7	고성산성	현내면 산학리	고려	토기편7점, 이와편1점	
8	열산형성지	현내면 산학리	고려		신규
9	죽정리 선사유물 산포지	현내면 죽정리	청 동 기	화살촉1점, 석검1점, 무문토기편 수점	
10	죽정리 고인돌유적 I	현내면 죽정리	청 동 기		화진폭콘도 건너,6기
11	죽정리 고인돌유적 II	현내면 죽정리	청 동 기		5기
12	죽정리 고려고분군	현내면 죽정리	고려	청자대접2점, 접시2점, 청동대접1점, 녹청자 편1점, 청동숫가락1점	신규
13	금구도성지	현내면 초도리	조선		
14	조제암지	현내면 명파리	신라		신규
15	군수권익룡영세불 망비	현내면 산학리	조선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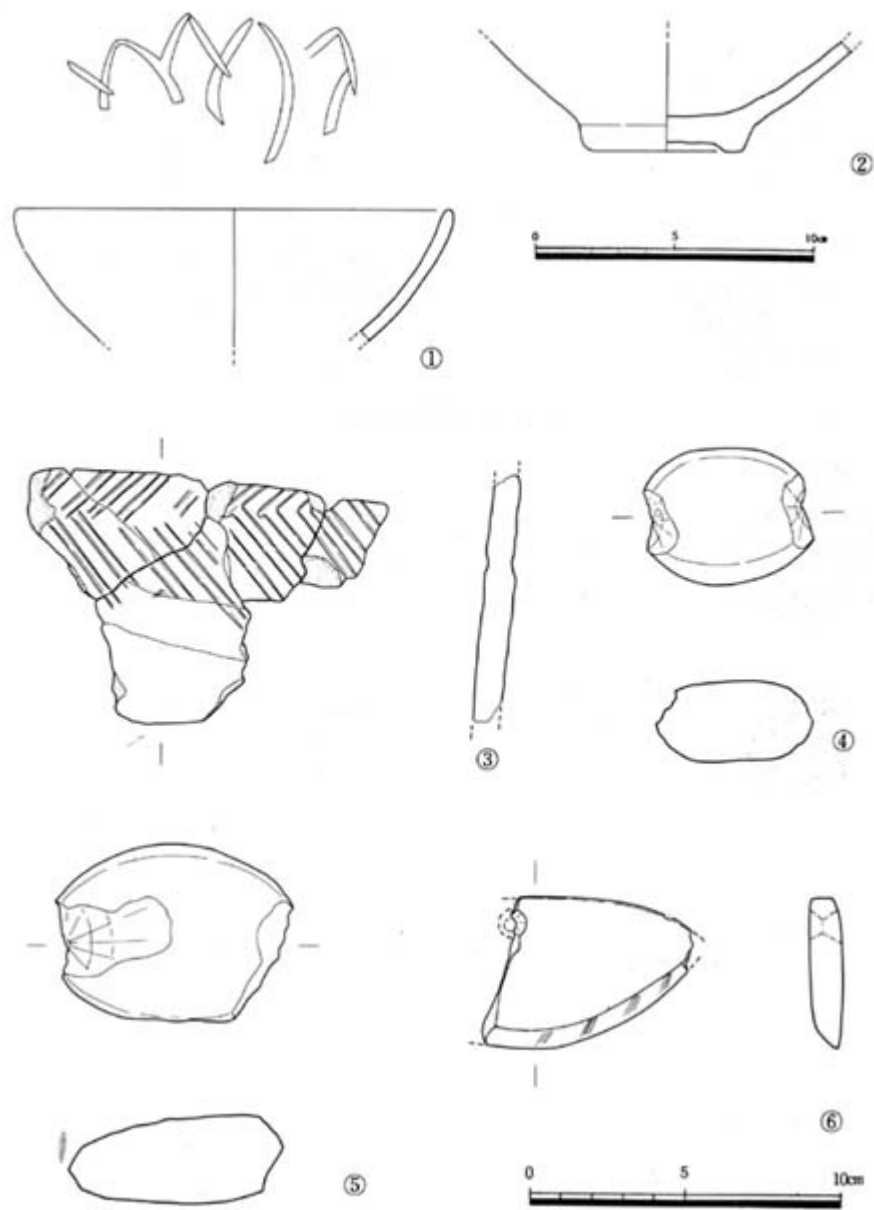
도면 1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④

도면 1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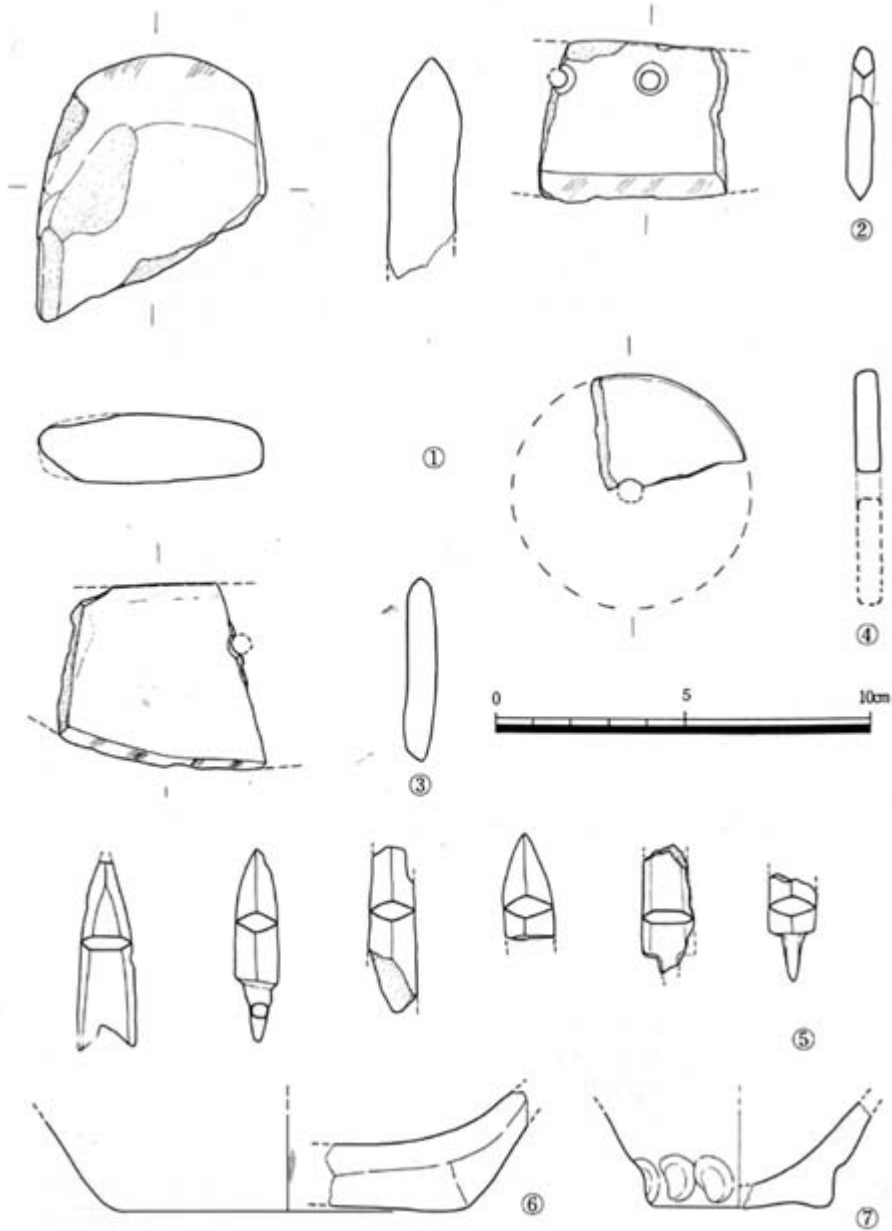
도면 2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④

도면 2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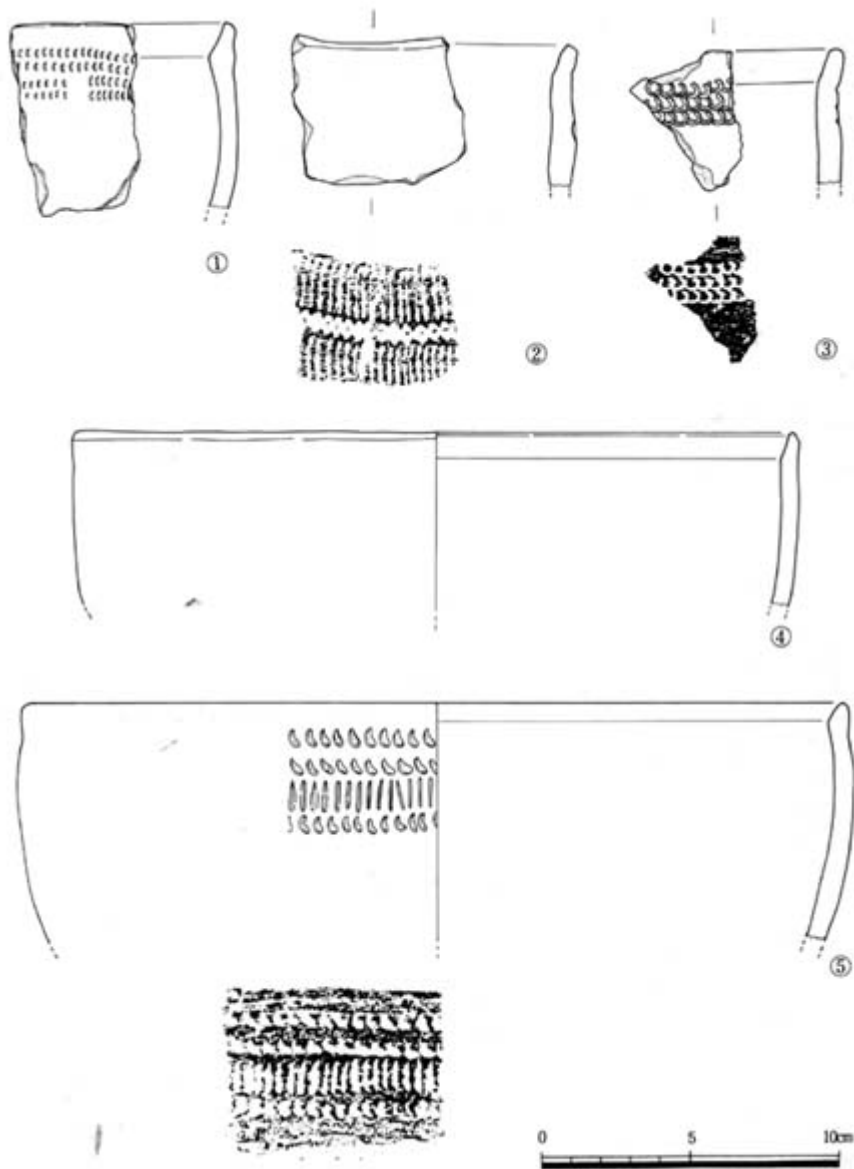
도면 3 금수리산성 채집유물 ① ②, 원당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③~⑥

도면 3 금수리산성 채집유물, 원당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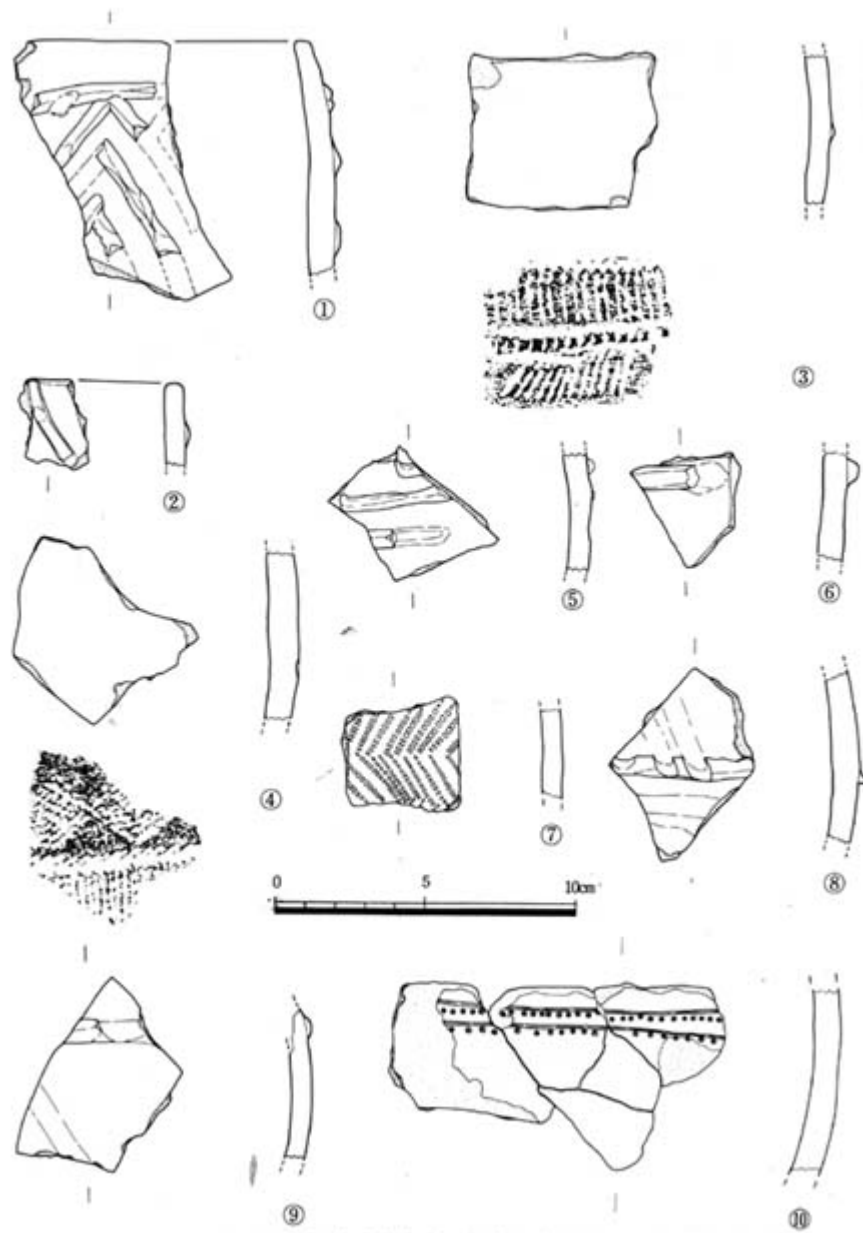
도면 4 화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⑤, 화포리 초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⑥⑦

도면 4 화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화포리 초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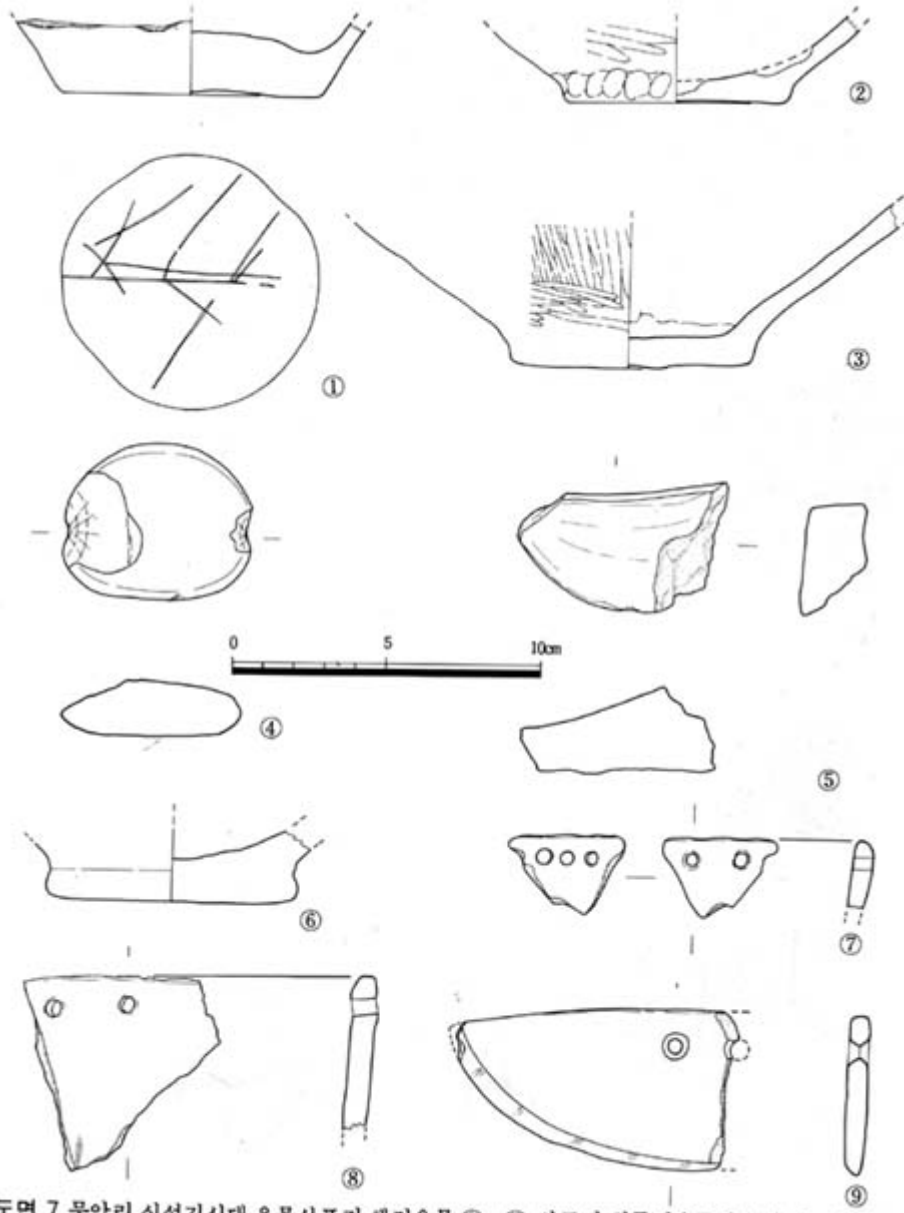
도면 5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⑤

도면 5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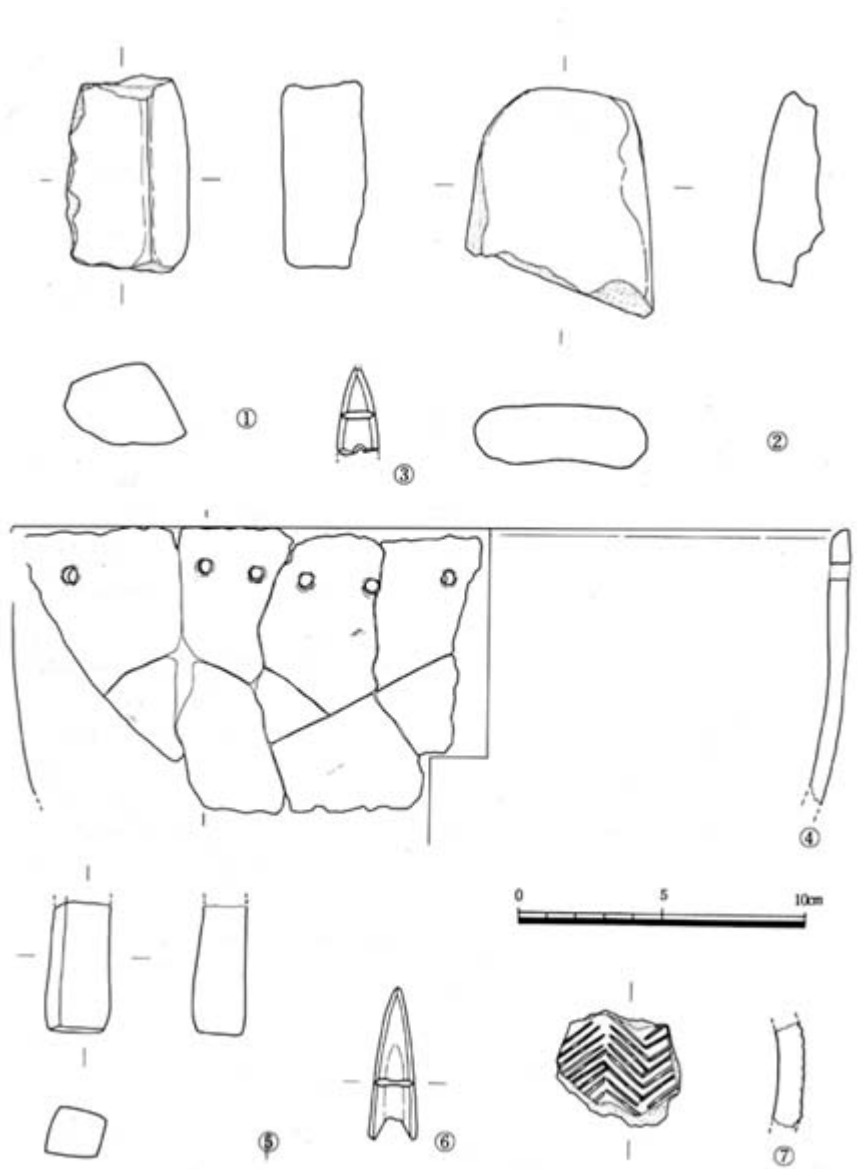
도면 6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⑩

도면 6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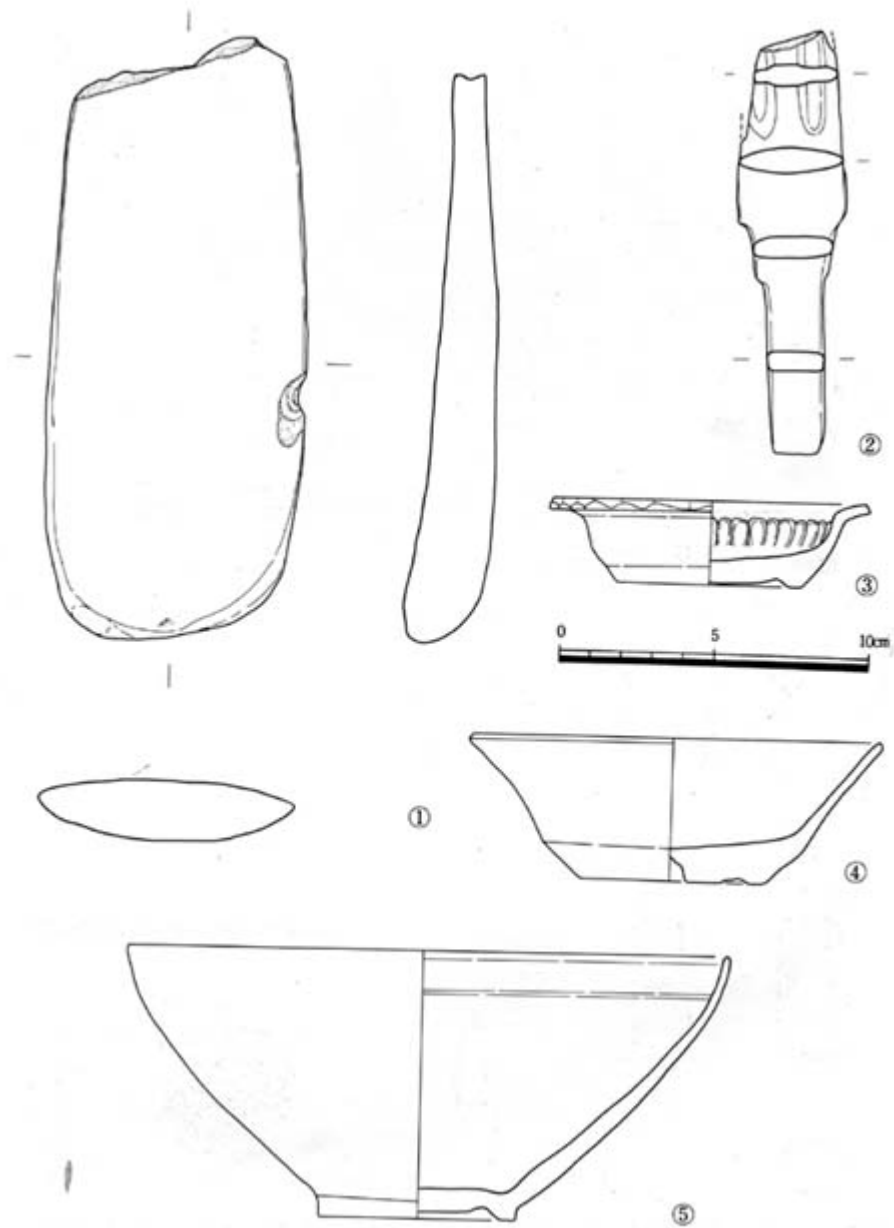
도면 7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⑤, 삼포리 청동기유물산포지 ⑥~⑨

도면 7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⑤, 삼포리 청동기유물산포지 ⑥~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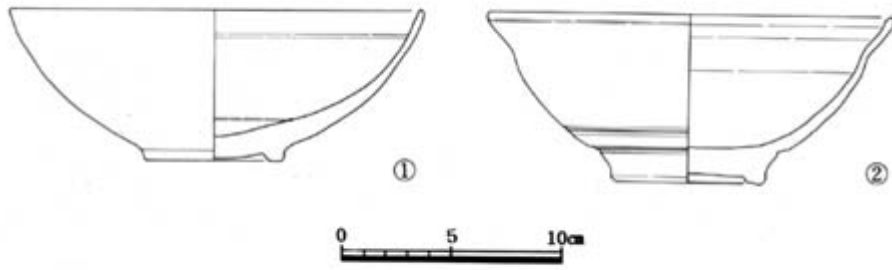
도면 8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③, 인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④~⑥,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⑦

도면 8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③, 인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④~⑥,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⑦



도면 9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②, 죽정리 고려고분군 채집유물 ③~⑤

도면 9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①②, 죽정리 고려고분군 채집유물 ③~⑤



도면 10 죽정리 고려고분군 채집유물 ①②

도면 10 죽정리 고려고분군 채집유물 ①②



사진 1.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 동호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2. 동호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 2. 동호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 3. 금수리산성 성벽기단부 모습

사진 3. 금수리산성 성벽기단부 모습



사진 4. 금수리산성내 채집 외편

사진 4. 금수리산성내 채집외편



사진 5. 금수리사지 석탑

사진 5. 금수리사지 석탑



사진 6. 원당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 6. 원당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 7. 화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7. 화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8. 정양산봉수지 원경

사진 8. 정양산봉수지 원경



사진 9. 건봉사 보림암지

사진 9. 건봉사 보림암지



사진 10. 송시열선생 친필刻字(청간정)

사진 10. 송시열 선생 친필刻字(청간정)



사진 11. 만경대 전경

사진 11. 만경대 전경



사진 12.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2.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3.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3.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4. 인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4. 인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사진 15. 죽도성지내 와적 상세

사진 15. 죽도성지내 와적 상세



사진 16.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중앙)원경

사진 16. 죽정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중앙)원경



사진 17. 죽정리 고려고분 매납 유물노출상태

사진 17. 죽정리 고려고분 매납 유물노출상태



사진 18. 마차진리 봉수지 근경

사진 18. 마차진리 봉수지 근경



사진 19. 조제암지 근경

사진 19. 조제암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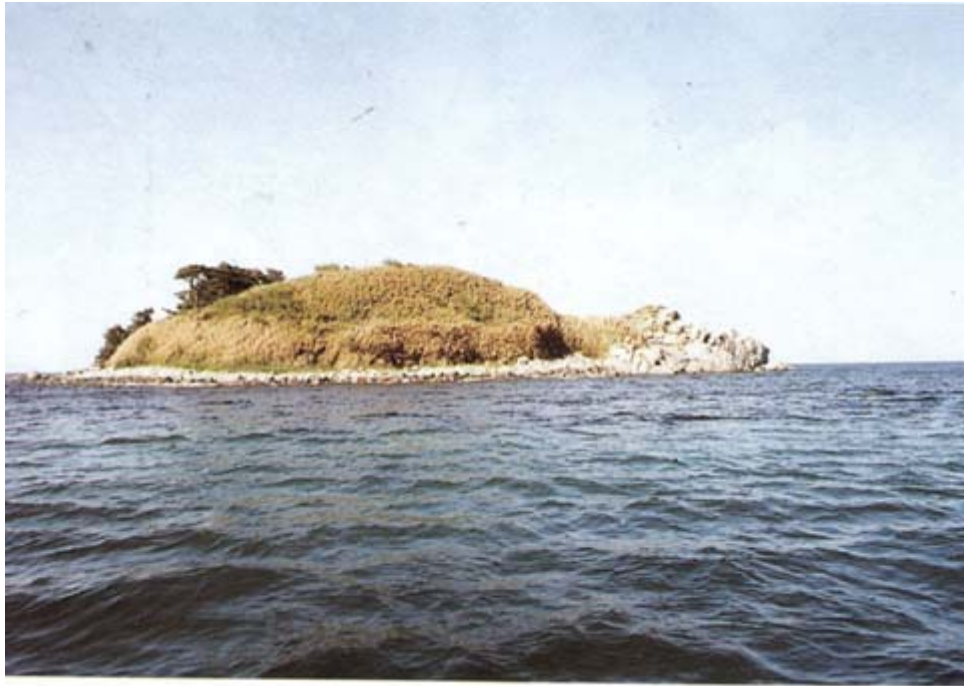


사진 20. 금구도성지 원경

사진 20. 금구도성지 원경